

고객의 생활에

필요로움을 더하고

행복을 키우기 위해

삼양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90년만큼

앞으로의 90년도

천천히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90년
자랐을 뿐입니다

90th



삼양사 화학연구소 윤광중 님 자녀 윤수영 님

華嚴書院 山仰會報



송탄완월(松灘翫月)

黃昏緩步行 松韻和灘聲
素月更流彩 悠然心境清

어둠 녘 느릿느릿 걸어를 가니
솔 소리 어울려라 여울 소리와
하얀 달이 빛깔을 흘러내리니
마음속이 유연히 맑아지누나

금탄에서 배를 띄우다(泛金灘)

晚泛金灘棹 高瞻李子亭
驚眠洲畔葦 魚鬪浪頭萍
雲影侵山白 天光著水青
菱歌生浩蕩 孤興入冥冥

금탄이라 저물녘 조각배 띄워
이 군의 옛 정자를 쳐다보노라
해오리는 강기슭 갈대애 졸고
고기때는 물결 위 마름 건드리네
산에 잠겨 하얗고야 구름 그림자
물에 붙어 새파랗다 하늘 빛깔은
호호탕탕 넓은 가람 연 캐는 노래
외론 흥이 아득한 저 깊은 속으로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의 인연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본회 이사)

조선 중기의 선비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의 선비. 문묘에 배향된 호남 유일의 유학자. 그런데 필자는 하서선생을 정이 넘치는 스승이고 친구요, 남편이며 아버지로 기억하고 싶다. 지금은 감성의 시대이다.

하서 김인후는 <미암일기>를 남긴 미암 유희춘(1513-1577)과 친구이다. 두 사람은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하여 화순 동북으로 유배 온 신재 최산두(1483-1536) 밑에서 같이 동문수학하였다.

1527년에 18세의 하서는 술 한 통을 가지고 신재 최산두를 찾았다. 그는 10일간 머물면서 신재로부터 굴원의 <초사>를 배웠다.

신재 선생께서 나복현에 유배 와서는
술 남았느냐고 첩에게 물었다네.
떠다니는 세상이라 유난히 느낀 게 많아
석양에도 취한 술 깨지를 앓네.

위 시는 하서가 지은 '신재 선생께서 술 남

았느냐고 물었던 말을 기억하면서 두보의 시에 화운하여 경범에게 지어 보이다'의 제1수이다.

한편 미암 유희춘은 해남 출신으로 그의 외조부가 금남 최부(1454-1504)이다. 최부가 무오(1498)·갑자사화(1504)로 화를 입었는데 <표해록>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성종 말년에 있었던 최부와 송흠(1459-1547)과의 "역마를 타고 오다니" 일화는 지금도 공직자 청렴교육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유희춘의 형 유성춘(1495-1522)은 1519년 기묘사화로 죽었으며 유희춘도 1547년 정미사화로 18년간 유배를 살다가 선조 임금 때 빛을 본 인물이다.

하서는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비교적 윤택하게 살았으나 미암은 상당히 곤궁하고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미암의 아버지 유계린은 최산두와 함께 한훤당 김굉필에게 공부를 배운 사림이어서 그의 자부심은 상당히 강하였으리라.

하서와 미암의 우정은 하서가 1530년대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더욱 돈독하여

진다. 어느 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하서는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 위독하였다. 당시 성균관 관원이었던 미암은 하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병 수발을 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간 하서는 살아났고 1540년에 문과 급제할 수 있었다. 또한 1543년 겨울에 미암이 무장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옥과현감으로 있는 하서를 찾아와 <효경간오> 한 질을 놓고 간접도 있었다.

그런데 유희춘은 1547년(명종2년)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제주도로 귀양 가게 된다. 그는 다시 두만강 근처인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가 된다. 제주가 미암의 고향인 해남과 가깝다는 이유였다. 미암은 함경도로 귀양 가는 도중에 하서를 만난다. 하서는 미암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실낱같은 재회를 기약하며 시를 짓는다.

술에 취해 꺾었다고요. 버들가지 하나
이별의 순간은 다가오는 데, 한없는 이 정을
어이하리.
만리라. 내일이면 머나먼 길을 뜬다지.
저 달이 몇 번이나 밝아야 그대 돌아오려나.

그리고 하서는 '자네가 멀리 귀양을 가고 처자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자네의 아들을 나의 사위로 삼겠노라' 고 한다. 그 당시 미암의 외아들 유경렴은 벼슬도 없는 상태였다. 하서 집안에서는 반대하였으나 하서는 자기 고집으로 셋째 딸을 미암의 외아들에게 시집보낸다. 미암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이야기

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성웅지소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장성에 낙향하여 살고 있는 하서는 종성에서 유배중인 미암에게 자주 안부 편지를 보낸다.

아름다운 아미암 같은 사람
어찌 이리도 생각나게 하는가
언제 함께 평상에 앉아
책 펴고 조금씩 갈라 밝힐 수 있을지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 있다. 여기에서 '아미암'은 해남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유희춘의 호 미암도 이 바위에서 따온 것이다.

유배중인 미암 또한 하서를 그리워하며 답시를 보낸다.

종성은 천하의 궁벽한 곳
티끌 모래 날로 일어 자옥만 하네.
사투리를 잃지 않은 십년 나그네.
부질없이 고향 꿈만 꾸고 있다네.

북쪽 변방 아무도 물어오는 사람 없는데
하서 혼자 나를 생각하며
삼 백 자나 되는 시를 새로 적어 보내
털끝만큼 어긋나다 요게 그르쳤음을 말해주네.

흥미로운 것은 하서 김인후가 미암의 며느

리가 된 셋째 딸에게 보내는 시가 있다는 점이다. 제목은 '유씨에게 시집 간 딸에게 지어 주다. (與柳氏女)' 이다.

내 친구는 북방에 귀양 가 있고
네 지아비도 만리를 따라 갔구나
가을바람에 시름겨운 생각 그지없는데
들국화가 술잔 속에 떠 있구나.

我友在朔方
汝夫隨萬里
秋風意無窮
野菊盃觴裡

이 시는 어느 해 가을에 썼는데 시에서 하서는 자기 딸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은연중에 비치고 있다. 시아버지가 유배중이고 남편도 함경도 종성에 가 있었고, 시어머니 송덕봉은 미암을 챙겨주려고 창평에서 만리나 되는 종성을 왔다 갔다 하였으니 집안 살림은 하서 딸이 도맡아 했다. 더구나 하서가 고집을 피워서 이런 힘든 곳으로 딸을 시집보냈으니 마음이 짠했으리라.

한편 미암의 부인인 송덕봉은 당찬 여장부이고 여류시인이었다.

가고 가서 마천령에 이르니
동해 바다 끝이 없더니 종성이 나오더라
여인네가 만리를 어인 일로 왔는가
삼종의 의리는 중하고 내 몸은 가벼운 것을

송덕봉은 남편을 보러 마천령을 넘으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대동기문>에 전하여진다.

1560년에 하서 김인후는 세상을 떠났다. 반면에 미암 유희춘은 1567년에 선조가 즉위하자 유배가 풀리고 다시 복직하여 승승장구 하였다. 선조는 그를 총애하여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렸다. <경전>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미암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한다. 그가 남긴 '미암일기(1567년부터 1577년까지의 기록)'는 16세기 조선 시대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서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서 김인후의 흔적은 장성 필암서원과 황룡면 맥동마을이다. 광주광역시 도로명에 '하서로'가 있고 북구 중외공원에는 하서 선생 동상이 있다. 미암 유희춘의 흔적은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의 연계정과 모현관이고, 광주 무양서원과 해남 해촌서원에 외조부 최부와 함께 신위가 모시어져 있다.

河西先生 詩의 天命思想과 그 志向性

오종일 (전주대 명예 교수)

1. 서 론

이 글은 하서선생의 시(詩)에 나타난 선생의 내면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 내면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선생의 학문 세계 뿐 아니라 그 지향성(志向性)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선생은 중종조 후기의 시대에서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면서 조정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그 시대는 기묘 사람들의 이상이었던 도학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도의 근원을 밝히고 그 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문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시대였다. 도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도는 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천도의 실현은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을 어떻게 발현하는가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본성은 천명에 의한 것이니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는 명제가 그것이다. 하늘이 명하여 준 본성을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도덕적 가치로서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니, 결국은 천명을 해명하고자 하였던 것이 그 시대의 과제였다.

인간으로서 천명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천인심성(天人心性)의 문제가 그 전제가 된다.

천명이라 할 때, 천(天)이란 명령하는 자(者)이며, 성(性)이란 그 명을 수령(受命)하는 자(者)이다. 따라서 그 수령하는 것은 만물이라 할 것이며, 이를 알고 판단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니, 곧 심(心)의 존재와 역할을 해명하려는 것이 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 양촌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 나와 있는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천인심성합일의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며, 그 근원을 살펴보면 이는 천명의 문제로 요약되는 것이다.

천명의 근원과 인간의 존재문제를 제시한 것이 이른바 「천명도」였다. 「천명도」의 배경에는 주렴계의 「태극도」는 물론 권양촌의 「천인심성합일지도」가 그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이지만, 이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추만 정지운이었고, 그 「천명도」를 수정하였던 이황의 견해에 이를 제기하였던 것이 기대승이었으며, 그 만물의

생성과 심성의 발현의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이 사칠논변이었다. 그 왕복서가 오고가기 시작한 것은 명종 14년(1559)년 부터였다.

그러나 이 논변이 일어나기 이전, 정지운은 순창에 칩거하고 있었던 하서선생에게 그 도설을 질정하였고 선생은 그 「천명도」에 후제(後題)를 기록하였던 것이니 그 때가 명종 4년 기유년(1549)년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서(1510 중종 4년~1560 명종 15년)선생이 추만(정지운 1509 중종 4년~1561 명종 16년)의 천명도에 「후제」를 쓰게 되었던 것일까 하는 그 까닭을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 여기에는 慕齋(金安國 金安國 1478 성종 9년 1543 중종 38년)와 思齋(金正國 1485 성종 16 1541 중종 36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모재의 문인인 선생과 사재의 문인인 정지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모재를 스승으로 섬겼던 하서선생과 기묘사화로 고양으로 귀양 와 있었던 사재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던 추만, 그리고 모재와 사재의 문하를 왕래하였던 두 분의 사이는 일찍부터 두터운 교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추만은 「天命圖說 自序」에서 “慕齋와 思齋에게 물었더니 나무라지 않고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모재와 사재 그리고 선생과 추만의 관계는 일찍부터 깊은 교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해하게 된다.

천명(天命)의 문제는, 유학사상에 있어서 학문적 본원이며 성리학의 근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의 천명의 근원과 그 유행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선생의 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II. 선생의 도학 연원과 「讓畔頌」

공자가 자신의 저술을 술이부작(述而不作) 신이호고(信而好古)¹⁾라 하여, 시서(詩書)를 산삭(刪削)하고 예악(禮樂)을 정리하였음을 말하였는데²⁾, 그것은 공자의 정신이 창조(創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왕의 옛것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³⁾.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선왕의 옛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공자는 꿈속에서라도 주공(周公)을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였거니와⁴⁾, 공자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옛것이란 주공(周公)이 이룩한 주(周)의 제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周)의 제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보다 오랜 역사와 사상의 축적이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공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의 조상 후적(後稷) 이후 공류의 창업 정신과, 태왕의 인정(仁政), 그리고 문왕(文王)의 덕과 무왕(武王)의 통일, 성왕(成王)의 시대

1) 『論語』 「述而」

2) 위의 兪 朱註: 孔子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3) 위의 兪. 傳先王之舊

4) 『論語』 「述而」 吾不復夢見周公

에 이루어진 주공의 섭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오랜 역사에서 이루어진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많은 노력 가운데서도 주나라가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문왕의 덕으로 얻은 천명(天命)이 그가 건국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된 것이었다.

우리가 주나라의 건국을 말할 때, 흔히 인용하고 있는 『시경』 「대아·문왕」편에 있는 “주수구방기명유신(周雖舊邦其命維新)”이라는 말을 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周)나라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었지만, 문왕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명을 받고 새로운 국가로서 출발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자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그 이상이 주(周)의 제도에 있었다면, 공자사상의 연원은 주(周)나라에 있었던 것이며, 주(周)의 정신은 문왕의 천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문왕이 획득한 천명이야말로, 주나라 건국의 출발점이 되었음은 물론, 그로부터 주나라가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주나라가 이룩한 인간의 가치와 덕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가 전개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니, 이는 실로 공자의 이상이 그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문왕의 천명이야말로 주나라의 사상과 문화의 연원 뿐 아니라 유학사상의 이상이었으며, 공자가 염원하였던, 인간의

덕성을 중시하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이며 거기에서 출발되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 문왕이 천명을 얻게 된 근거와 그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문왕의 선행(善行)에 있었다. 문왕의 선행이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백성들이 문왕의 가르침을 따랐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백(西伯:文王)이 남모르게 선(善)을 행하니 제후들이 모두 와서 평결을 받으려 하였다. 그 때 우(虞)와 예(芮)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周)로 갔다. 경계에 이르자 발갈이하는 사람들이 발두둑을 양보하고 젊은 백성들은 모두 어른에게 양보하였다. 평결을 받으러 간 사람들은 서백(西伯)을 만나기도 전에, 함께 부끄러워하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투는 것을 주나라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니 잘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수치스러움만 안겨줄 뿐이다’ 하고 서로 양보하고 돌아갔는데, 제후들이 이 말을 듣고 ‘서백은 무릇 천명을 받은 군주’라 하였다”⁵⁾

여기에서 발하고 있는 천명을 받은 군주라는 정의는 문왕이 그 때 비로소 천명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갈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발두둑을 양보하였다는 “경자개양반(耕者皆讓畔)”의 시기는 무왕이 통일을 이룩한 BC. 1122년보다 7년이 앞선 해였으니, 그 때가 BC.

5) 『史記』 「周本紀」 西伯陰行善 諸侯皆來評決 於是虞芮之人 有獄不能決 乃如周 入界耕者皆讓畔 民俗皆讓長 虞芮之人 未見西伯 皆慙 相謂曰 吾所爭周人所恥 何往焉 祇取辱耳 遂還 俱讓而去 諸侯聞之 曰西伯受命之君.

1129년이었다. 유학사에서는, 이 해를 문왕이 천명을 획득한 원년으로 삼고 주나라 역사의 출발점으로 본다.

문왕의 덕은 주공의 제도로 정착되고 공자의 이상이 되었던 것이니, 공자의 가르침은 송나라의 정주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 도학의 체계화를 이루고 마침내 조선조의 이상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조의 개국과 함께 표방되었던 충절의 의리나 경국제세의 이상은 중종조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의 도학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니 그 중심에 하서선생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추구하는 바의 가치와 그 이상이었던 도학의 정신적 연원이 어디에 있었으며 하서선생은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하는 문제를 주목하게 된다.

도학이란 도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도(道)는 천도이며 그 천도의 근원에는 천명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서선생은 천명과 도(道)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까닭은 선생의 천명의식이야말로 그 시대의 이상과 선생의 학문적 특징을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선생의 천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의 도학사상의 연원으로서, 주나라의 천명과 도의 사상적 근원이 되는 문왕의 천명을 선생은 어떻게 이해하였던가 하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선생의 천명의식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선생이 쓴 시, 「경자 양반송(耕者讓畔頌)」이다. 그 까닭은 이 시가 바

로 위에서 제시하였던 우와 예의 사람들이 주나라에 보았던 밭두둑을 양보한 사실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이 쓴 이 송(頌)에서 우리는 선생의 천명사상과 그 천명이 실현되는 세계를 선생의 이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선생은 이에 대하여

“공류(公劉)가 후직(后稷)의 통서(統緒)를 잇고 고공단보가 기산의 양(陽)에 터전을 정하여 그 덕이 한결갈아서 신령스러운 자손을 탄생하여 능히 상천(上天)과 합하고, 그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 넘쳤으나 하늘을 공경하고 스스로를 믿지 않았으며 은나라 조정을 더욱 조심히 받들어 하늘의 보살핌이 있어 복을 내려주는 경사가 있었다”⁶⁾ 하였다.

하늘이 입을 내려/ 우리 서백(西伯)이시니/
조상 업을 계승하여/ 만인이 우리르네/ 우리 백성 어루만져/
그 베품 넓었어라/…오직 저 두 군주/ 서로 함께 밭을 다둬/ 송사결단 못한 채/ 해가가고 달이 지나/
멀리 덕을 흠모하여/ 올바른지 물어보려 길을 떠나/
경내에 당도하여/ 성인 정치 살펴보니/
검은머리 백성들은/다투지 않고 사양하니/
수레 돌려 하는 말이 어허 우리 어찌 할까?/
임금구실 못한 사람/주민(周民)보기 부끄럽네/
…아아 집희(緝熙)의 공/ 머릿속여 엮드리네/
행여 무너지지 말고/ 천수 만수 누리소서⁷⁾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선생의 시를 통하여 우리는 선

6) 『河西全集』 「耕者讓畔頌」序. 公劉起中古續茲遠緒…至古公始都于岐陽 厥德不回誕生神孫 克配彼天 至澤旁流 …欽欽不敢自居 奉朝廷愈謹 皇天眷祐福慶.

생의 도학 연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도학 연원은 문왕의 천명에 있었으며, 그 이상은 주나라와 같은 치국평천하를 이루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생의 생각은 도학의 연원을 중시하고 그 연원으로부터 전개되는 제가치국의 질서로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양반(讓畔)에서 비롯한 천명의 실현은 제가치국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며 그로부터 평천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의 이와 같은 의식은 문왕의 천명에 이은 제가치국의 전개로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던 것이니, 그것이 「독주남」의 시이다.

「주남」은 문왕이 서백(西伯)의 시절에 태사(太姒)와 혼인하는 모습을 나타낸 시로서 우·예지인(虞·芮之人)을 감화시켰던 그 덕으로부터 제가치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선생은 이에 대하여,

관저는 정가(正家)의
비롯됨이니
군자의 도가
이루어지는 단초이네⁷⁾

라고 하였다. 이는 「관저」의 시가 제가의 출발로서 군자의 도(道)는 정가(正家)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선생이 생각하였던 정가(正家)의 당연성은 어디에 말미암은 것일까?

이에 대하여 선생은 「독주남(讀周南)」시에서 말하기를,

주나라는 옛 나라지만
천명이 새로우니
깊고 그윽한 문왕이여
근원이 나타남을 노래하네⁹⁾
라 하였다.

선생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방명유신(周邦命維新)은 「대아·문왕」의 시, 주수구방기명유신(周雖舊邦其命維新)이며 목목가문고(穆穆歌文考) 또한 그 시에 있는, 목목문왕집희경지(穆穆文王緝熙敬止)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생의 이 시는 모두 문왕의 천명의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천명의 의지야 말로 도학의 연원이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천명의식의 구체적 사실이 문왕이 천명을 받은 것이며,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시(詩)가 『시경』의 「대아·문왕」편으로서, 「대아·문왕」편이 있기까지는 우·예 사람들의 송사가 있었고, 그 송사를 일으켰던 그들이 문왕이 천명을 받은 사실을 보고 이를 증거한 것이며, 그 사실을 나타낸 것이 선생의 「경자양반

7) 「耕者讓畔頌」天生我后伯我西土 恭承祖業萬物咸都 撫我元元厥施其普…惟彼二君相與爭田 訟起未決歷世彌年 遙欽德義有來就正 忽暨我境以觀聖政 群黎百姓不爭以讓 返駕相告嗟我無狀 爲君罔君愧彼周民 於皇緝熙我拜稽首 不蹙不崩維千萬壽

8) 「讀周南」關雎正家始造端君子道

9) 위의 시. 周邦命維新 穆穆歌文考.

송」인 것이다.

이는, 문왕이 천명을 받고 덕을 베풀어 서백(西伯)의 사람들이 양반(讓畔)하는 감화가 이루어지고 그 덕이 집희경지(緝熙敬止)에 이른 것이니, 선생의 시는 모두 천명의 시종을 밝힌 것으로서, 그 천명으로 실현되는 경지가 올바른 제가치국이고, 그것이 「주남(周南)」의 정가(正家)의 세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선생의 시 「경자양반송」과 「독주남」의 시는 선생의 도학연원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천명(天命)의 덕으로서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선생의 도학연원이 천명에 근원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도학에서 성리학으로

유학사상의 연원이 되었던 것은, 주(周) 나라가 이룩한 평천하의 정신이었다. 그 다스림의 이상은 공자에 의하여 유학으로 완성되어, 그 지선의 세계를 지향(志向)하는 이상으로 정립하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은 공자의 가르침은 송대(宋代)에 이르러, 리기(理氣)로 설명되는 이기론(理氣論)과 성정으로 발현되는 성정론(性情論), 그리고 그 발현의 당위성으로서 설명되는 도리(道理)의 실천론(實踐論)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근원정신은 천명에서 발현되는 도(道)의 실현이 그 목표였으며 학문의 내용이 된 것이다.

선생이 생존하였던 중종 5년(1510)부터 명종

15년(1560)사이에는 학문적으로는 신진사람들이 도학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였고, 그러한 정신은 조선조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선생의 도학적 관점은 조선조 성리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선생의 시대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변환, 곧 도학으로부터 성리학으로 발전하였던 그 시기에 있어서 선생은 어떤 학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서 선생의 시에 나타난 도학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조 성리학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생의 시에 나타난 도학적 특징은 무엇일까?

선생의 이상은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 천명은 문왕의 이상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양반(讓畔)의 시가 그것이다. 그러면 그 천명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그것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합일적 노력과 그 실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도와 인도의 합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공자의 오도일관(吾道一貫)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논어』 「팔일」편에 기록된 “오도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이며, 그 오도(吾道)란 공자의 도(道)이니, 구체적으로는 증자가 천명한 “충서(忠恕)의 도(道)”이다.¹⁰⁾

주자는 충서(忠恕)에 대하여 “부자(夫子)의 도(道)는 일리(一理)가 혼연(渾然)하여 모두 대응하고 곡진함을 당(當)하는 것으로서 비유하면

10) 『論語』 「里仁」子曰 參乎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천도(天道)의 지성무식(至誠無息)함이니 만물(萬物) 각득기소(各得其所)와 같은 것이다”¹¹⁾ 하였다. 이는 공자의 도(道)를 한마디로 나타낸 것으로서 유학의 근본적 가르침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천도를 인도로써 발현하고자 하였던 그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선생은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였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선생의 도학적 의지는 물론, 학문적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선생의 이와 같은 도(道)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생이 쓴 시 「일관부(一貫賦)」를 통하여 그 깊은 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의 「일관부(一貫賦)」는 공자의 일관(一貫)이며, 나아가 천도와 인도에 대한 인식이며 선생이 도(道)를 인식하는 중요한 관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생의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구절을 인용하면,

...

오묘한 하나의 이치가 까마득한데서 움직여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가득하네.¹²⁾

그 실상은 모든 조화의 핵심이며

오로지 모든 현상의 밑바탕이니¹³⁾

...

고금을 다하여 언제나 그러하였으니

어느 것 하나인들 그 본체가 아니될 것인가¹⁴⁾

...

이미 한결같은 마음으로 흠어지지 않으니

진실로 굳고 순수하여 오로지 하나이니¹⁵⁾

...

충서라 가리켜 대답하니

이게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니¹⁶⁾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생의 우주론과 도(道)의 실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오묘한 하나의 이치가 까마득한데서 움직여(妙一理之冥運)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가득하네.¹⁷⁾ (泯聲臭以冲漠)라고 한 것은, 주자가 “체용(體用)이 일원(一源)한 것은 지극히 은미한 리(理)로서 말한 것이며, 충막무짐(冲漠無朕)하여 만상(萬象)이 삼연(森然)하게 갖추어진 것이다¹⁸⁾”라고 한 것이다. 체(體)와 용(用)이 일원으로 서 모든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충막

11) 위의 朱註: 夫子之一理渾然而泛應曲當 譬則天地之至誠無息而萬物各得其所也.

12) 妙一理之冥運 泯聲臭以冲漠

13) 實萬化之樞紐 諒品彙之根柢

14) 亘古今而常然 豈一物之不體

15) 既主一而無適 嘗純亦而不二

16) 指忠恕以爲對 茲可導其津筏

17) 妙一理之冥運 泯聲臭以冲漠

18) 『近思錄』 卷三「易傳 小註」 體用一源者 以至微之理言之 則冲漠無朕而萬象森然已具矣

무짐(沖漠無朕)의 현상이니 우주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실상은 모든 조화의 핵심이며(實萬化之樞紐)

오로지 모든 현상의 밑바탕이니¹⁹⁾(諒品彙之根柢)라고 한 것은, 주자가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에서 태극에 대한 근본적인 작용을, 조화의 핵심이며 모든 현상의 근본이라는 뜻으로서, 조화지추뉴(造化之樞紐) 품휘지근저(品彙之根柢)라 하였다. 선생은 이와 같은 주자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서 천도의 실체는 우주의 변화 원리이며 사물의 근본 바탕임을 말하였던 것이다. 또한

...

이미 한결같은 마음으로 흠어 지지 않으니(既主一而無適)

진실로 곧고 순수하여 오로지 하나이니²⁰⁾(謗純亦而不二)라 한 것은 정자(程子)가 말하는 주경(主敬)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정자는 주일(主一)을 경(敬)이라고 하고 무적(無適)을 일(一)이라 하였다. 선생은 그러므로 오로지 경(敬)을 실현하는 마음으로써 하늘의 실체에 이르고, 그 순수함으로써 도(道)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수양론으로서 진기(盡己)와 추기(推己)를 통하여 충(忠)과 서(恕)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곧 공자가 말하는 일관지도(一貫之道)의 실현 방법이다. 선생은 천도의 실현을 자신의 수양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것이 오직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이다.

주자는 충서의 실현이란 “비유하면 천지가 지성(至誠)무식(無息)하여 만물(萬物)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²¹⁾ 이에 선생은, 충서라 가리켜 대답하니(指忠恕以爲對) 이게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니네(茲可導其津筏)라 하여 공자의 뜻을 곧 깨닫고 이를 충서로서 답한 증자의 홀륭함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충서의 도(道)로서 이루어지는 일관지의 가르침이야 말로 공자가 스스로 ‘오도(吾道)라 하였으니 이는 유학의 근본정신이며 그 핵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은 그 가르침을 「일관부(一貫賦)」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생의 시 「일관부」가 지니는 가치와 거기에 나타난 선생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일관부」의 시가 지니고 있는 정신과 그 근원성을 살펴보면 선생이 「경자양반송」에 나타난 천명은 문왕의 「주남」시를 통하여 제가 치국의 정신으로 나타나고 「일관부」에 이르러 천도(天道)와 인도(人道)가 일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천명의 실현이며 공자지도(孔子之道)의 실현이다. 그러나 선생의 중요한 관점은 공자의 시대에서 공자가 제시한 충서의 가르침을 공자의 의식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

19) 實萬化之樞紐 諒品彙之根柢

20) 既主一而無適 謗純亦而不二

21) 『論語』 忠恕章 朱註 “譬則天地之至誠無息 而萬物各得其所也”.

아니라, 송나라 시대에 이루어진 유학의 재구성, 곧 신유학의 이론으로써 공자의 일관을 말하였다는 점에서 선생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그 학문적 특징을 주목하는 것이며, 이는 송대(宋代)의 정주학은 물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선생의 시대에 맞는 성리학 이론으로서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V. 선생의 천명사상과 그 이상세계

선생이 그 시대에 추구하고자 하였던 이상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선생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이상은 유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지선의 세계로서 이는 명명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니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은 천명에 이르고자 함이니, 그 천명의 실현은 스스로 간직한 선(善)을 밝히는 진기(盡己)와,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선의 실체를 발현하도록 하는 추기(推己)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충서(忠恕)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이는 하늘이 간직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천명을 떠나서는 그와 같은 이상세계에 들 수 없는 것이다. 유학사상에서는 처음 그 천명을 받았던 구체적 인물을 문왕이라 하였으니, 선생은 그 사실을 「양반송(讓畔頌)」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讓畔)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천명을 실현한 문왕의 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천명을 실현하는 방법은 충서(忠恕)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니 그것과 인도로서 그 천명을 실현하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이를 일관(一貫)이라 하는 것이다.

선생이 그 일관의 정신을 말하였던 것이 「일관부」임을 알 수 있거니와, 이제 그 일관부를 통하여 이룩된 이상세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선생의 이상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선의 경지에 이르러 만물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세계는 이상세계이지만 이는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주자는 이를 천리의 유행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인간이 지닌 본성 그대로를 발현하는 세계라 할 것이다.

선생은 이를 「욕기(浴沂)」의 시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 또한 선생이 이루고자 하는 경지이지만 실제로는 공자의 희망이기도 하다.

『논어(論語)』 「선진(先進)」편에는 공자와 그 제자 자로(子路) 증석(曾皙)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 네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있다. 공자가 각각의 하고 싶은 바를 물었을 때, 증석이 “늦은 봄에 나들이웃이 만들어지면 어른들 몇 사람과 어린아이 몇 사람과 더불어 기수(沂水)에서 몸을 씻고 무(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주자는 증점이 말한 그 생각을 “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가 유행함이 이르는 곳마다 가득 차 조그만틈도 빈 곳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오로지 천리로서 가득찬 세계임을 말한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까닭으로 그 움직이고 고요한 어느 때에도 그 꼭 알맞음이 이와 같았으니, 그 뜻을 말함에는 그 자신이 처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고, 평소의 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버려서

남을 위하여는 뜻이 없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바가 그대로였으니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여 각각 그 오묘함을 얻었으니, 자연히 그 말로써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주자가 말한 이른바, 천리를 실현하는 경지인 것이다.

선생의 시(詩)가운데 위에서 제시한 천리가 유행하는 세계를 나타낸 「욕기(浴沂)」의 시가 있다. 이 시는 선생의 이상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천도와 인도가 일관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은,

...

어른과 어린이들 봄옷을 입고
쉬엄쉬엄 기수에 목욕을 가네²²⁾

봄물 넘실넘실 흘러가고

봄날은 한창 따듯하네

...

무의 맑은 바람 가득한데
옴조리며 유유히 돌아온다.

이 시는 선생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나타낸 선생의 뜻이 담겨져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생이 활동하였던 중종조의 시대에는 유학의 근본정신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 유학사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천도(天道)이며 천도는 천명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처음으로 이와 같은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 주나라였으며 그 주나라를 건국하였던 인물이 문왕이었다. 따라서 문왕의 천명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지선의 국가를 건국하였던 것이 문왕이었다. 중종조의 시대에서 기묘 사림을 비롯한 조정의 훌륭한 선비들은 도학정치를 표방하였는데, 그 도학이란 천도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니, 그 천도의 근원은 천명에 있었다.

하서 선생은 그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천명으로부터 실현되는 인간의 지극한 도(道)를 세워서 만물의 도가 약동하는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그와 같은 의지를 밝힌 시(詩)가 「경자양반송(耕者讓畔頌)」에서 천명의 근원을 밝히고, 「일관부(일관부)」를 통하여 천도를 인도로서 실현하는 일관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그와 같은 천도가 유행하는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여, 「욕기(浴沂)」의 시를 썼던 것이니, 이와 같은 선생의 시를 통하여 선생의 참다운 도학정신과 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서선생의 시에 나타난, 선생이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는 천명을 실현하는 도학의 세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도에 대한 실체의 탐구가 아니라, 그 천명사상을 당시의 시대정신으로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2) 冠童服春服 去去浴乎沂.

청절당(淸節堂)의 제영(題詠) 소감(所感)

김장수(본회 이사)

부덕한 제가 차산 안진오 회장께서 2002년 초대 산양회장에 추대되었을 때 보필한답시고 초대 총무를 맡았고 그 후 감사를 거쳐 현재는 산양회 이사(이사장 정환담)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항시 하서선생을 존모하는 마음 뿐 실천에 옮기는 일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춘추 향사나 학술발표회 등으로 이래저래 서원에 가 볼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주소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에 위치한 필암서원에 들어서면 승무유현 명필 동춘당 송준길(1606-1672) 선생이 휘호한 청절당(淸節堂)이 있습니다.

깨끗한 절개로 하서선생의 굳은 절의를 상징하는 강당입니다. 이 강당에는 하서선생을 존송하던 선유(先儒)들의 기라성 같은 한시(漢詩)나 기문(記文) 등 24개의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서선생(河西先生)의 문묘종사(文廟從祀) 반교문(頒敎文)이나 교서(敎書), 전교(傳敎), 제문(祭文) 등은 해서(楷書)로 되어 그런대로 알아 볼 수 있지만 명사들의 한시 제영(題詠)은 지금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근래 필암서원은 도산서원 등 전국의 유수한 9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중국의 악록서원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산양회 회원은 물론 서원을 안내하는 관계자 모두가 필암서원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대외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에 바탕을 둔 도학, 절의, 문장의 학습 못지 않게 현존하는 문화유산 즉 서원의 연혁과 각종 게시물, 춘추 향사의 의전 절차 및 기타 서원 관련 행사 등의 이해는 물론 해설 능력 배양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음식점에 종업원이 가게에 걸린 액자나 족자를 고객에게 친절히 설명하듯 서원을 찾아주신 탐방객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절당 안에서 우동사 쪽으로 게시된 한시 몇 편을 소개합니다.

1. “필암서원 근차증조고운”

삼연 감창흡(三淵 金昌翕:1653-1722)의 증조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차운시(次韻詩) 7언절구

筆巖書院 謹次曾祖考韻. (1717년 丁酉 安東人 金昌翕)

필암서원에서 하서 선생 존모하여 *증조부의 시에 따라 짓다.

韜光未欲作人師. 難掩千秋出處奇.
一幅霜筠宸翰在. 此翁心事此君知.

겸손하여 남의 스승되려 않지만
출처의 기이함은 천추토록 가리기 어려우리.
묵죽도 한 폭 임금의 편지 속에 있으니
이 분의 심사를 이 임금이 아시리.

* 안동인 청음 김상현으로 병자호란 삼학사 한분이며 월정 윤근수 문인이다.

2. “필암서원 경차 송강선생운”

온재(韞齋) 김진옥(金鎭玉 · 1659-1736)이
송강(松江) 정철(鄭澈 · 1536-1593)의 “懷 河西”에 차운한 5언 절구

筆巖書院 敬次 松江先生韻(후학 *김진옥)
필암서원에서 송강 정철 선생의 시에 공경
히 따라 짓다.

學問與出處 吾祖說河翁
今來香一瓣 耿耿宿心中

학문과 출처를 이야기하면
조부께서 하서선생을 말하였다오.
지금도 느끼는 한 판자의 향기는
오래도록 심중에 남아 있지요.

* 온재 김진옥:광산인. 사계 김장생의 현손

이며 우암 송시열 문인이다. 조부는 이조판서를 지낸 김익희를 말함

3. “筆巖書院 敬次 西垞 柳相公韻”

*추담(秋潭) 김우급(金友汲 · 1574-1643)이
서경(西垞) 유경(柳根 · 1549-1627)의 “題 河西書院”시에 차운한 시와 서원을 중창할 때 소회(所懷)를 적은 “題 書院中營廳”의 7언 율시 2편.

筆巖書院 敬次 西垞 柳相公韻.

필암서원에서 공경히 서경 유상공 운에 따라 짓다.

末學悠悠茅塞蹊 逢人頻得說河西
光輝同玉雖能點 塔級猶天不可梯
鼎水尙無寬似海 卯山何必醉如泥
固知忠節超千古 餘事詩名李杜齊

후학은 따르기 아득하고 지름길도 떠 풀에
덮여

사람을 만나면 자주 하서선생 이야기 듣네.

옥처럼 빛나는 인품 누가 차지하려는가

하늘처럼 높아 사다리도 쓸 수 없네.

갑자기 선정을 펼 길 없어 원통함 바다와
같으니

어찌 난산에서 꼭 진탕 취하고 싶어서일까?

진실로 충절이 천고에 뛰어남을 알 것이오

이백, 두보처럼 글 짓는 솜씨는 그 밖의 일
이랴오.

* 추담 김우급 : 광산인. 옥곡 김기 후손으로 모암서원 내산서원 중창에도 힘썼다.

題 書院中營廳

서원 중영청에 쓰다.

先生心跡有誰傳 祠廟丹青野水邊
新構初年因二老 中營今日賴諸賢
河汾土木功將訖 雲谷儒生業可專
自惜近來筋力盡 未堪敦事歲時遷

선생의 남긴 뜻 뒤라서 전하리오.
들녘 강가에 사당은 단청되었네.
서원이 처음 *두 분 원로의 정성으로 들어섰고
지금 증창은 여러 어진이 노력한 바라
뱃길로 자재 날려 공사 끝내니
서원의 유생들 공부 제대로 하네.
내가 애석함은 요즘 근력이 없어서
증대사 감당 못하고 세월만 가네.

* 기효간 선생과 변성온 선생을 지칭함

4. “題 河西書院”

긴저문제로 송강과 함께 탄핵을 당하였고
예조판서와 좌찬성을 지낸 문신으로 광해군
때 폐모를 반대하여 충북괴산으로 낙향하였
던 서경 유근(西峴 柳根)의 7언 율시

題 河西書院

하서선생 모신 서원에 쓰다

後死長悲失路蹊. 平生未及拜河西
清新俊逸詩無敵. 博約操存學有餘
天上徒勞望星斗. 人間奚啻隔雲泥.
巋然詞宇瞻如在. 安得依歸勉與齊

萬曆 丁巳之仲夏(1617년)下澣 後學 柳根 書

후생은 길을 잃어 길게 슬퍼하오며
평생토록 하서선생 뵈옵지 못하였네.
참신하고 빼어난 시는 적수가 없었고
널리 배우고 본성 지켜 학덕이 넉넉하네.
하늘위에 북두별 헛되이 바라보니
사람들이 어찌 구름에 가릴 뿐이라?
우뚝한 사당 바라보니 계신듯하니
어찌하면 선생의 뜻 따라 같이 갈 수 있을까?

5. “懷 河西” 와 “鰲山雜詠河西先生” 연 판시

○ 회하서(懷河西) 송강(松江) 정철(鄭澈 ·
1536-1593)

東方無出處°獨有湛齋翁°年年七月日°痛哭萬
山中.

河西一號湛齋每值仁廟諱辰°前期携酒入山°
醉後號哭無節云.

하서 선생 그리워서
동방에 출처 바른 사람 없는데
유달리 담재선생 한 분 계셨네.
해마다 칠월 그날이 되면
통곡소리가 온 산중에 들렸네.

하서선생 다른 호가 담재다. 매년 인종의 돌
아가신 날이 오면 앞서 술을 가지고 난산에 들
어가 취한 뒤 한 없이 소리 내어 울었다 한다.

鰲山雜詠河西先生 청음 김상헌(1570-

1652)칠언절구

湛翁風節是吾師 健筆清詩更擅奇
莫恨當時俱未識 後來還有子雲知[°]
右河西先生

장성고를 두루 읊은 대목 - 하서선생
담재옹 청풍고절 바로 나의 스승이니
글센 필력 맑은 시는 기이함을 차지했네.
당시 사람들 몰랐다고 한탄 말게.
뒤따르는 양자운이 오히려 공자님 알듯 하리라.

6. 筆巖書院 敬次 淸陰 金先生韻 병계
윤봉구(1681-1767)

筆巖書院. 次淸陰先生韻. 河西金先生所享.
卽長城地.

필암서원에서 청음 김선생 윤에 공경히 따
라짓다.

先生百世可爲師 出處惟常不是奇.
非若一時慷慨做 皆從道義學而知[°]

선생은 백세토록 스승으로 섬길 분이니
출처는 오직 떳떳하여 기이함은 아니지요.
일시에 강개하여 그리한 것 아니며
모두가 도의를 따라 배워서 알았기 때문이라오.

7. “독 하서집” 5언 율시 * 제봉 고경명
(1533-1592)

讀河西集.
하서선생 문집을 읽다

高矣河西子. 如天不可階.
斯人今寂寞. 此道已沈埋.
寶稿披蘭雪. 虛襟罄沐齋.
文章方日下. 三復有餘懷.

높이도 계셨네 하서선생님
하늘갈아 계단 닫고 오를 수 없고
이 분 지금은 안계시니
우리 도는 이미 함께 묻혔네.
향기롭고 깨끗한 글 풀어 헤쳐
목욕재계 흠금을 다 털었네.
문장은 그럴싸한 날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회포가 남네.

* 제봉 고경명 : 장택인. 금산에서 순절한
임란 의병장. 포충사에 모신 충렬공을 말함.

8. “석주 권필시”

청절당에서 가장 눈이 끌리는 현판은 삼당
시인으로 유명한 석주 권필(1569-1612)선생
의 초서로 쓰인 율시 한편.

烏川之後得先生 포은 선생이후 하서 선생
나시니
東國千年道復明 우리나라 천년의 도가 다시
밝았네.
灑落如光風霽月 깨끗하기는 광풍제월 같고
精純有玉色金聲 정순한 옥은 금성이 울리는
듯하네.
眞人已駕青雲去 참된 분은 신선되어 청운
속으로 떠나고

古洞空傳白鹿名 살던 마을 무심코 백록의
이름만 전하네.

末學永嘉權輶者 후학인 안동인 권필이라는
사람은

作詩聊記敬賢情 시를 써 애오라지 어진 분
공경함을 표합니다.

조선조에 들어와 중종 12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문묘 종사가 처음 이루어진 다음 포은 선생 이후 하서선생이 나서서 우리나라 도학이 다시 밝게 되었다는 인물평을 하였습니다.

정조대왕께서 하서선생 문묘배향 후 1796년 11월 8일 내린 교서에 “하서선생은 해동의 염계(북송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이시다”라고 칭송하였고 하서선생과 문순(퇴계) 문성(율곡)의 관계를 설정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내용으로 보아 1610년 광해 2년에 한훤당 김굉필(갑자사화) 일두 정여창(갑자사화) 정암 조광조(기묘사화) 회재 이언적(정미사화) 퇴계 이황 등 5현이 승무하였지만 그 다음 해 1611년 3월 26일 정인홍이 상소하여 을사사화 때 좌찬성인 회재와 홍문관 부수찬인 퇴계를 을사사화 때 문정왕후의 협조 또는 방관자로 지목하여 문묘종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주 권필은 척족(戚族) 유희분(柳希奮) 등의 방종함을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에서 공격하다가 복인과 광해군의 뜻에 거슬려 급제로 뽑혔다가 삭과(削科)된 사실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하자 당시에 회자된 바 있는데, 시기적으로 궁류시(宮柳詩)

처럼 포은과 하서를 존송하는 이면에는 일부 유현 승무에 대한 풍자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유학사에서 한국사회의 전통을 이어왔던 충효사상은 민본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호남유학은 조선중기에 국난을 당하여 충과 의로 발현되어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의 언근(言根)이 되었으니 이는 하서선생께서 기묘명현 정암 조광조선생의 신원회복(伸冤回復)을 창도(倡導)하신 의리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볼 때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의 대중화 운동은 필암서원산양회의 중대 목표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선조 정유재란의 혹독한 참화로 학문의 풍토가 피폐하여 하서선생의 승무가 늦어지고 고봉, 사암, 미암, 옥계, 일재 5현을 비롯한 눌재, 송재, 석천, 면양정 등 이전의 선유(先儒)들의 훌륭한 정신적 가치를 제대로 알거나 알리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들의 선조께서 공동체정신의 사회적 실현이 인간 성리중심의 도학의 발전과 더불어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듯이 그 시원(始原)에 하서선생이 자리합니다.

하서선생의 성명(性命)과 음양(陰陽)에 관한 깊은 식견은 아득히 태극도(太極圖)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고,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요지는 먼저 「소학」에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시를 지어 뜻을 말하는데 있어서는 천지 사이에서 공자와 주자 두 사람만을 추송하였고, 이치를 연구하고 근원을 탐색하여 일찍이 <역상편(易象篇)>을 저술하였는데 여러 학설들이 탁월하였고, 홀로 대의(大意)를 보아 추구해 나감에 스스로 터득

하게 되었으니, 도(道)와 기(氣)가 하나로 섞여 있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의 잘못된 논리를 단연코 내치시어, 이(理)와 기(氣)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변론은 유현들의 의심을 후련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인종을 보필하는 신하로서 은연중에 마음이 부합한 것은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은 것과도 같았고, 임금과 백성들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맡고 나선 것은 이윤(伊尹)이 성탕(成湯)을 만난 것과도 같다고 하였는데 아 아 국운과 시운이 한 번 비껴가니 반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향사 때마다 호남유림이 추모하는 정희가 유다른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석주 권필(1569-1612)에 대하여

권필은 1569(선조 2)~1612(광해군 4).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 승지 기(祺)의 손자이며, 벽(璧)의 다섯째아들이다. 해광 송제민의 사위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술로 낙을 삼아, 부인이 금주를 권하니 시 <관금독작(觀禁獨酌)>을 지었다. 젊었을 때에 강계에서 귀양살이하던 정철을 이안눌(李安訥)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동료문인들의 추천으로 제술관(製述官)이 되고, 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며, 강화에서 많은 유생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구용(具容)과 함께 강경한 주전론을 주장했다. 광해군 초에 권신 이이첨(李爾瞻)이 교제를 청했으나 거절했다. 유희분(柳希奮) 등의 방종을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에서 공격하다가 광해군의 뜻에 거슬려 삭과(削科)된 사실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 비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된 조수륜(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연좌되어 해남으로 귀양가다가 동대문 밖에서 행인들이 동정으로 주는 술을 폭음하고는 이튿날 44세로 죽었다.

시재가 뛰어나 자기 성찰을 통한 울분과 갈등을 토로하고,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조반정 이후 사헌부지평에 추증되었고, 광주(光州) 운암사(雲巖祠)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고양시 위양리에 있고, 묘갈은 송시열(宋時烈)이 찬하였다. <석주집(石洲集)>과 한문 소설 <주생전(周生傳)>이 현전한다.

궁류시

임무숙(任茂叔)이 삭과(削科)됐다는 말을 듣고

궁궐 버들 푸르고 꽃은 어지러이 나는데

宮柳青青花亂飛

성안 가득 벼슬아치들 봄별에 아양 떠다

滿城冠蓋媚春暉

조정에서는 다 같이 태평성대 축하하거늘

朝家共賀昇平樂

그 누가 위태한 말 포의 입에서 나오게 했나

誰遣危言出布衣

정인홍상소문:정인홍 광해군 일기 39권 3년 3월26일 기사. 초

이언적과 이황이 지난날 가정(嘉靖) 을사년

(1545)과 정미년(1547) 사이에 혹은 극도로 높은 벼슬을 하였고, 혹은 청직과 요직을 지냈으니, 그 뜻이 과연 벼슬할 만한 때라고 여겨서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못 되거니와, 만년에 이르러서는 결연히 물러나 나라에서 여러번 불러도 나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하나의 높고 뽐뽐한 일이며 세상을 경멸하는 행실입니다. 어찌하여 조식과 성운이 행한 바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지나치게 높은 노장을 본받았던 말입니까. 대저 고상을 지나치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황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한 세상을 우롱하고 나 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았으니, 그의 병통은 현자·지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화답하여 혀를 놀리는 자가 너무도 많으니 조식과 성운이 무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옛날 성현에게까지 무함이 미치고, 또 장차 후학을 속여 사도(斯道)를 해칠 것이니, 이는 작은 우려가 아닙니다. 신이 논변해 밝혀서 언어와 문자 사이에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황이 조식과 성운에 대하여 절개요 이단이라고 하여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시속을 좇아 세력에 붙고 이익을 탐하여 수치가 없으며 시종일관 권간(權姦)의 문객이 되어 맑은 논의에서 버림을 받은 이정(李楨)과 황준량(黃俊良) 같은 약간의 무리들을 도학으로 허여하기도 하고 성현으로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왕복한 편지가 쌓여 책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앞서서 나가고 앞서서 숨어서 명리(名利)의 마당에서 늙은 자를 하루아침에 도학의 공정(工程)과 성현의 사업으로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좋아하고 미워함과 취하

고 버림이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데, 이것이 과연 천부적 본심과 올바른 성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때문에 신이 더욱 마음에 불만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삼가 선대 조정에서 전하신 비망기를 보니, 하나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밝혔다고 하였고, 하나는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고 버리는 의리를 바로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전에도 후에도 발명하지 못한 바른 의론을 발명하였다고 하고는, 이어서 무고한 왕자의 사형을 청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선왕은 이언적의 일이라고 여기셨으나 혹자는 언적이 아니라 이황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국가의 문적에서 비록 누구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선왕의 전교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학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지니고서 소인이 득세하여 군자를 해칠 때에 구하지 못하고 같이 행동을 한 수치가 있었으니, 신하가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는 의리와 돌처럼 단단한 절개로 속히 떠나는 의리와는 또한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평소에 한 모든 일은 주행기(周行己)의 허물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정자가 주행기를 너무 심하게 꾸짖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만이지니와 그렇지 않다면 군자가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자신을 닮는 도리로 헤아려 볼 때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인에게 있는 일이라면 진실로 별일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유학을 한다는 이름이 있는 자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황이 자기를 살피는 데에는 어둡고 남을 책망하는 것은 심하니, 이것이 어찌 군자의 심사이겠습니까. 끝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과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선생의 도통(道統)을 통한 조우(遭遇)

김용숙 (본회 이사)

1. 본고(本稿)를 쓰게 된 경우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의 위패(位牌)를 모신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죽수서원(竹樹書院)에서 초헌관으로 천정(薦定)되어 향화조두(香火俎豆)를 봉헌(奉獻)하였고 선생의 적려(謫廬) 유허지(遺墟地) 영당(影堂)에 봉심(奉審)한바 있었기에 본고를 쓰게 되었다.

선생은 요순우(堯舜禹) 삼대의 지치(至治) 왕도정치(王道政治)로써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정치(理想政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정치와 사회의 구습을 타파, 혁신하고자 하였다. 기득, 훈구세력과 중종의 변심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기묘사화로 유배되어 적소(謫所)에서 사사(賜死)되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과거역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정암의 정치사상과 혁신

- 소격서(昭格署) 철폐, 이단종교, 미신, 무

당 등 배척

- 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의 혁파로 민생

안정

- 향약(鄕約)의 보급으로 향촌사회의 교화

- 군주론(君主論), 대신론(大臣論),

대간론(臺諫論)을 강조하여 요순우(堯舜禹) 삼대(三代)의 왕도정치(王道政治)

실현 모색

- 현량과(賢良科) 실시 28명의 참신한 사람을 선발 정계 진출

- 부정부패의 척결 단행, 76인의 위훈삭제(僞勳削除)

3. 기묘사화(己卯士禍) 발발과 개혁의 실패

○ 소격서 철폐시 궁중 비빈 등의 저항과 원망이 극심한 것을 훈구파 척신들의 교묘한 선동으로 후궁들이 주초위왕(走肖爲王)의 사건을 일으켜 중종왕을 기만

○ 현량과 시행에 반대하는 훈구파들이 역적의 봉당을 조성한다고 중종왕을 기만

○ 위훈삭제로 훈작을 삭탈당한 훈구세력의 강력한 반발

○ 1519년(중종14년) 홍경주, 남곤 등의 훈구파가 밀의하여 밤늦게 비밀리에 신문문을 통해 중종왕을 면담, 조광조가 봉당을 조직하여 정사를 문란케 하였다고 탄핵. 조광조 등 신진사류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과 상소에 염증을 느낀 중종왕이 그 탄핵을 수용함에 따라 기묘사화가 발발(勃發)하여 도학정치를 실현하려던 사림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고, 정암선생은 화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 해 12월 사사됨.

○ 기묘사화의 영향

- 훈구파의 조정 장악
- 현량과 폐지
- 소격서 복원
- 소학교학의 중단
- 향약의 폐지
- 언로의 폐쇄
- 도학정치의 중단
- 도통의 중단

4.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기묘명현(己卯名賢) 신원(伸冤)상소

○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

선생은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知製敎兼經筵檢討官)에 재임 시 중종왕 38년에 홍문관차자(弘文館筵子:상소문)를 올리고 조강(朝講:아침강론), 주장(晝講:낮강론) 2회에 걸쳐 군덕(君德), 용현(用賢), 정사습(正士習), 소학(小學) 및 삼강교학(三綱敎學), 향약(鄕約)의 시행과 언론(言路)을 확충하고 보장할 것과 기묘사화 때 처벌된 정암 조광조 등 명현(名賢)의 신원(伸冤:원통한 일을 풀어줌)을 하여 줄 것을 목숨을 걸고 주청하였다.

기묘사화는 중종왕 14년(1519년)에 일어나 중종39년(1543년)까지 25년간 기묘사화 주동세력인 훈구파와 사화를 수용, 재결한 중종왕 위력 하에서 역적을 추종하거나 비호하면 삼족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말하거나 왕에게 상소를 하지 못하는 두려운 사안을 처음으로 하서 선생이 홀로 주청하였다.

중종왕은 잘못을 깨달은 기색은 보였으나 신원은 허락하지 않고 소학 삼강교학만 윤허하였다.

하서 선생의 상소가 있는 후 경향 유림들의 신원을 주청하는 상소가 봇물 터지듯 있었으나, 중종왕의 재위기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하서 김인후 선생이 목숨을 걸고 상소한 이유

도학은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왕과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 주자(周子), 정자(程子), 주자(朱子)로 이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향(安珦), 정몽주(鄭夢周), 김숙자(金叔慈),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에 이르던 도통(道統: 도학전교의 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도통을 살려서 이어가야 한다는 도학자로서 사명감을 느껴 생사를 초월하여 실천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암 조광조선생과 하서 김인후 선생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으나 같은 도학자로서 도통을 통하여 이렇게 조우(遭遇)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기묘사화명현(己卯士禍名賢)의 신원복작(伸冤復爵)

인종이 세자시절, 하서선생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로서 책임 보도할 때 직접 그린 묵죽도와 주자일편을 하사하는 한편, 수시 불러 학문을 논하였을 뿐 아니라 야간에 직려(궁궐의 숙직장소)까지 찾아와 질정하는 등 수어계우(水魚契遇)가 돈독하였다. 그때 기묘사화의 부당함과 도통단절의 아쉬움을 강조함에, 인종이 감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위 6개월만에 기묘명현모두를 신원하고, 복작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선왕(중종)이 치결한 고도의 통치사상을 마무리하였다.

6. 두 분 선생의 도학정신과 현대인의 추모(追慕)

5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도학사상의 도통이

조선시대에 끊겨지려는 위기를 막고 백성들이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도학정치(道學政治), 왕도정치(王道政治),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정치적, 사회적 구습과 부정부패를 혁파하려는 정암 조광조선생을 비롯한 신진 사류의 우국정신(憂國精神)과 그분들의 죽음과 불이익을 원통하게 생각하여 생사를 초월, 상소를 감행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정신, 불의를 광정(匡正)하려는 의리정신(義理精神)은 현대사를 사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감히 느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김상협 전 국무총리 20주기 추도식 거행 ‘큰 스승, 김상협 남재 김상협 선생의 순결한 생애’ 출간 기념회도

남재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20주기 추도식과 출판기념회가 20일 오후 6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김 전 총리는 고려대 총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으며, 현재 JB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한 광주은행장의 부친이다.

이날 추도식은 김병국 고려대 정경대학장의 김 전 총리 약력 보고와 염재호 총장의 추모사, 김한 은행장의 가족대표 인사말 등의 순서로 거행됐다. 이어 홍일식 전 총장과 김민환 명예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김 전 총리의 일대기를 담은 ‘큰 스승, 김상협 - 남재 김상협 선생의 순결한 생애’의 출간을 축하하는 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강화학파(江華學派) 정신과 독립운동

이용규(李鎔奎 · 전 뿌리회 회장)

들어가면서

나는 1949년도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시간 수업 전에 시조백수(時調百首)라 하여 매일 시조 한 수씩 배운 적이 있다. 그 때 기억나는 것이 하서(河西)선생의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라는 시조다.

청산(靑山)도 절로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산(山)절로 수(水)절로에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

그중에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하리라

창산자연자연(靑山自然自然)

녹수자연자연(綠水自然自然)

산자연수자연(山自然水自然)

산수간아역자연(山水間我亦自然)

이 얼마나 자연을 예찬한 시인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삶과 도가적(道家的) 지극한 경지가 아니겠는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대자연에 내맡긴 옛 풍류객들의 생활 태도는 엄숙하면서도 집착(執着)이 없어 더더욱 좋다.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 매인 데가 없고, 매인 데가 없으니, 모든 것이 허허로움이요, 자재로움이다. 이쯤이면 어느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생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서선생(河西先生)의 맑고 깨끗한 생각이며 가르침이라 생각할 때, 작금의 이 혼탁한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서선생을 더욱 흠모하게 된다.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어, 1662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96년 하서선생의 문묘배향(文廟配享)으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하서선생의 인종(仁宗)에 대한 절의정신(節義精神)은 우리의 사표(師表)가 되며, 더욱이 하서선생께서 낙향(落鄉)하신 이후에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시면서 후학(後學)을 양성하고 올곧은 절의정신(節義精神)을 실천하신 것을 생각하면 마치 강화학파(江華學派) 학인들의 삶의 정신을 연상케 된다.

15세기 말엽부터 왕양명(王陽明)의 심학(心學)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하였지만 이퇴계를 비롯한 정주계(程朱系)학자들의 강한 배척 때문에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언경(南彦經),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 종실인 이요(李遙) 등에 의해 왕양명의 심학은 겨우 피상적으로 소개된 정도였고, 오직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외롭게 시도되었다. 이어서 신대우(申大羽) 부자와 이충익·이건창(李忠翊·李建昌) 일가(一家)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 정인보(鄭寅普), 박은식(朴殷植) 등에게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양명학이 중심사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조선의 양명학은 매우 미미하였고 이단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명학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라고 하여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理)가 없다고 하였고, 양지(良知)와 지행합일(知行合一) 등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 성리학은 주희가 말한 '성(性)이 곧 이치(性即理)'라 하였다.

1. 조선후기 강화학파의 성립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 1649-1736)가

강화도(江華島)의 하곡(霞谷)마을에 자리를 잡은 것은 1709년(숙종35년) 8월이다.

봉당정치(朋黨政治)가 절정에 달했던 숙종 때, 정제두는 정권유지를 위해 공허한 논쟁을 일삼던 정치상황과 경직된 학문(學問) 풍토를 비판하며 선산(先山)이 있는 강화도로 들어와 20년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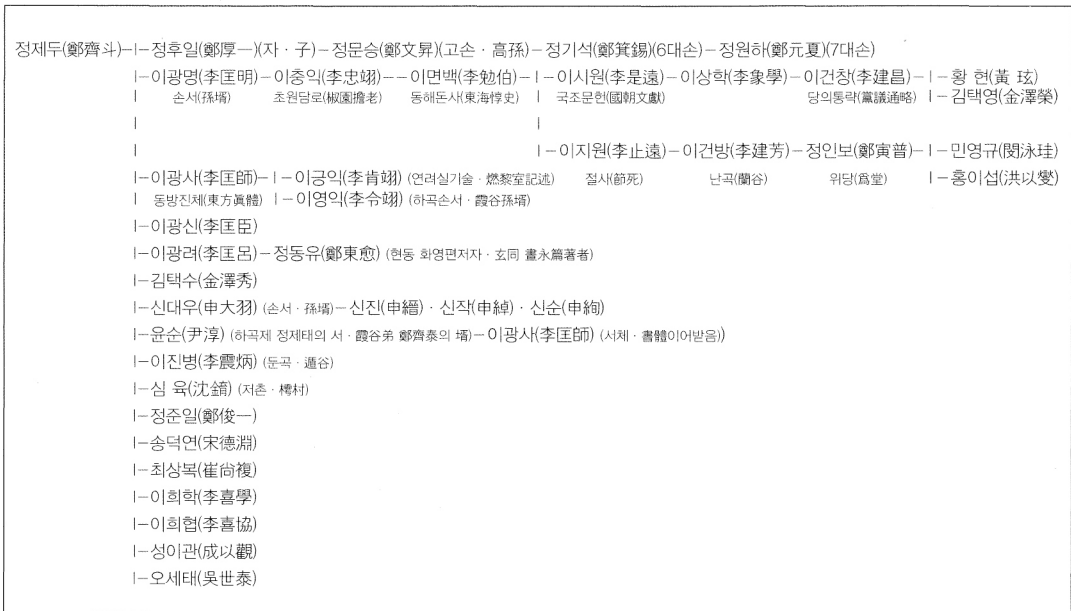
학문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주자학(朱子學) 일색의 허학(虛學)을 버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현실문제를 실천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양명학(陽明學)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열린 학문자세(學問姿勢)에서 인간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대학자(大學者)였다.

정제두가 강화도로 들어오자 그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아들과 손자 사위에게 가학(家學)으로 250년간 계승 발전되어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광명(李匡明)은 부친(진위 · 眞偉)이 29세에 죽자 송부인(宋夫人)[송준길증손녀 · 宋浚吉曾孫女]은 남편을 강화 사기리에 장사지내고 10살 먹은 독자 이광명만은 당화에서 보호하고자 벼슬과는 인연을 끊고 학문에만 정진시키려 정제두보다 1년 늦은 1710년 하곡의 집과는 10리 떨어진 사곡(沙谷)으로 이사왔다.

이광명(李匡明)은 하곡 문하에서 20여년간 학문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인간적 사랑을 받아 그의 손서가 되어 양 가문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역시 손서가 된 신대우(申大雨)도 강화로 이사와서 하곡의 훈도를

* 강화학파(江華學派) 계보도(系譜圖)



받아 연일 정씨, 전주 이씨, 평산 신씨 3가문이 하곡의 학문을 계승하게 되었다. 1736년에는 이광명의 종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도 강화로 이거하여 훈도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 양명학을 계승 발전시킨 주류는 전주이씨 덕천군파 후손인 이광신(李匡臣), 이광려(李匡呂), 이광사(李匡師), 이광명(李匡明)이 주축이 되는데, 하곡의 훈도를 받은 이광사(李匡師)는 아들 연려실(燃黎實) 이금익(李肯翊)과 신재(信齋) 이영익(李令翊)에게,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는 정동유(鄭東愈)에게, 이광명(李匡明)은 양자(養子)인 초원(椒園) 이충익(李忠翊), 대연(垓淵) 이면백(李勉伯), 사기(沙磯) 이시원(李是遠), 이지원(李止遠)으로, 다시 이시원(李是遠)은 아들 이상학(李象學)-이건창(李建昌)·이건승(李建昇)에게, 이지원(李止遠)은 손자(孫子)인 난곡(蘭

谷) 이건방(李建芳)에게, 이건방(李建芳)은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박한영(朴漢榮)으로, 정인보(鄭寅普)는 홍이섭(洪以燮), 민영규(閔泳珪)에게 학통이 이어져서 현재까지도 강화학은 면면히 계승되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강화학(江華學)의 주변에는 이건창(李建昌)의 지우(知友)이며 이건창(李建昌)에 의해 일찍이 추천된 바 있는 매천(梅泉) 황현(黃玑)·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이 있다. 그 외에도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연암(燕巖) 박지원(朴趾遠),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다산(茶山) 정약옹(丁若鏞), 오주(五州) 이규경(李圭景)(이덕무 손) 등의 대학자들도 양명학과 심학(心學)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진보적 지식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2. 강화학파(江華學派)의 정신(精神)

강화학파의 학인들은 심학 즉 치양지(致良知)와 진성칙(眞誠側)(인간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학문)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추구한 학문의 최종목표는 양지(良知)의 자기실현(自己實現)이었던 것이며, 사학(史學)과 정음연구(正音研究), 서화(書畫), 시문(詩文), 실학(實學) 등의 새롭고 창조적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강화학파의 역할은 ①우리 민족의 주체적·객관적 사관확립, ②우리의 것을 찾는 것, ③문예에 대한 깊은 이해, ④문학을 통한 민족의식의 각성, ⑤학문목표를 자기발견에 두었다.

강화학 학인들은 우리 얼(민족정신)의 바탕 위에서 추구하여 우리말(정음·正音)을 연구하여 이광사(李匡師)를 비롯하여 이공익(李肯翊), 이충익(李忠翊), 정동유(鄭東愈) 등은 <오음정서·五音正序>를 남겼고, 유희(柳僖)는 <언문지·諺文志>를 저술하여 사성(四聲)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여 우리 '얼'이 담긴 정음연구(正音研究)에 새 장(章)을 열었다. 강화학파가 추구한 양명학(陽明學)은 심학(心學)이었기에 시문(詩文)과 정(情)이 있고, 의(義)가 있으며, 예술이 있었다.

원교(員嶠) 이광사(李匡師)는 백하(白下) 윤순(尹淳)의 서예(書藝)를 이어받아 원교체(圓峯體)(동방진체·東方眞體) 창조로 대가(大家)를 이루었고, 이공익(李肯翊), 이충익(李忠翊), 정문승(鄭文昇) 등도 서화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정문승(鄭文昇)의 작품(作品)은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에 소개

되었을 정도로 뛰어났다. 이들의 예술은 우리 서화(書畫)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화이론(華夷論)에 바탕을 둔 성리학적인 유교적 전통문화가 민족의식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 반하여, 강화학파는 문학을 통해 민족의식의 각성을 제기하였다. 이충익·이공익·신대우·정동유·신작·이건창·이건승·이건방 등은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문학을 통해 민족의식(民族意識)의 자주적(自主的) 각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통찰해야 할 사항은 강화학파가 역사·언어·농학·실학 등 자기발견에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학문연구의 학풍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정후일(鄭厚一)의 수학연구(數學研究), 정문승(鄭文昇)의 농서(農書), 이상학(李象學)의 정다산(丁茶山)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리학자(性理學者)들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후기의 양명학의 특징은 진짜(眞)와 가짜(假)의 이론이다. 즉 가도학(假道學)과 위학배격(僞學排擊)에 힘을 모았으며 정주학(程朱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저항하는데 힘을 다했다.

강화학파의 중심인물 이견창(李建昌)의 가계(家系)를 보면 인조(仁祖) 때 호조판서 이경직(李景稷)과 영상(領相)을 지낸 이경석(李景奭) 형제가 우뚝 솟아 있었고 서곡(西谷) 이정영(李正英)(좌찬성, 판돈녕부사·左贊成, 判敦寧府事)과 그의 아들 이대성(李大成)(호조참판, 청백고행·淸白高行)의 아들인 북곡(北谷) 이진유(李眞儒)(이조참판, 명필)를 비롯하여 각리(角里) 이진검(李眞儉)(예조판서)·이

진휴(李眞休) · 이진급(李眞伋) · 이진위(李眞偉) 등 이진창(李建昌)의 6대조의 기라성 같은 5형제들이 있고, 5대조 이광명(李匡明)의 종형제 중에는 출중난 육진(六眞) 팔광(八匡)이 있는데, 이들은 일세명필(一世名筆)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를 비롯하여 이광태(李匡泰), 이광정(李匡鼎), 이광신(李匡臣), 이광현(李匡顯)이다.

이들 이외에도 이광사(李匡師)의 아들 연여실(燃黎室) 이궁익(李肯翊)과 신재(信齋) 이영익(李令翊), 특히 이진창의 고조되는 초원(椒園) 이충익(李忠翊)의 지조높이 살아온 길은 조선조 말엽의 선비중의 선비이며, 그 아들 이면백(李勉伯)(대연집 · 岱淵集)과 또 그의 아들이며 이진창의 조부인 사기(砂磯) 이시원(李是遠) · 이지원(李止遠) 형제의 병인양요때 순절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강화학과 학인들의 고도의 지적(知的) 결벽성은 을사조약(乙巳條約)과 경술국치(庚戌國恥) 소식과 함께 자결(自決)하거나 국외 망명(亡命)으로 연결된다. 그 중에 이시원과 이지원 형제의 죽음은 잊을 수 없다.

1866년(고종3년)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전 이조판서 이시원은 강화 관아의 벼슬아치들과 관군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다 도망치자 허망한 마음으로 국가위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한탄하며 자손들의 피난권유를 물리치고 사당 앞에 하직하고, 국가원로(國家元老)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소(遺疏)를 남기고 음독순절(陰毒殉節)했다.

그는 유소(遺疏)에서 병인양요를 국가 중흥의 전기로 삼아 절용과 애민을 통치의 도로 할 것을 당부하는 소(疏)를 쓰다가 음독한 약

기운으로 마지막 글씨는 힘이 없어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한다. 이 유소는 9월 21일 이시원집의 가동이 고종에게 전하게 된다. 이때 이시원의 선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이시원이 음독하고 유소를 쓰기 전에 지은 강도성함후작(江都城陷後作) 시를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백만 군사보다 나은 법
동래성에선 왜놈들이 송공(宋象賢)을 두려워하였지

몸이 여귀(여鬼:귀신)가 되어 능히 적을 섬멸하리니

7척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말하지 말라.

一死勝於百萬兵 英城倭懼宋公名

身爲厲鬼能殲敵 莫道鴻毛七尺輕

‘늙어 적과 싸울 수는 없으니 죽어서 여귀가 되어 원수를 갚겠노라’ 라는 시를 쓰고 자결하자 아우인 이지원(李止遠)은 형님이 죽어서 여귀가 되어 적을 치러 나갈 때 자기도 말고 비를 잡고 따라가겠노라며 뒤따라 자결했다. 이것이 강화학과 학인들의 정신이다.

이 때 이진창은 조부 이시원의 자결현장을 보았다. 조부 이시원으로부터 충의(忠義) 정신을 교훈받은 신동(神童)으로 알려진 소년 이진창(李建昌)은 이해에 열다섯살 어린 나이에 대과급제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려 4년 뒤인 19세에 벼슬길에 나가 옥당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이견창의 학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젊은 문사들이 모여 들었다. 전라도 구례에서 매천(梅泉) 황현(黃玑), 개성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광주(廣州)의 고원당(古權堂)姜위(姜瑋), 하정(荷亭) 여규형(呂圭亨),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 등등. 그중 이견창에 의해 추천된 바 있는 창강 김택영은 중국 남통(南通)으로 망명하면서 여한구가문(麗韓九家文)(뇌천/雷川 김부식/金富軾·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계곡/溪谷 장유/張維·택당/澤堂 이식/李植·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영재/寧齋 이견창/李建昌)을 제자인 왕성순에게 주었다.

왕성순은 1914년 창강 김택영의 글을 더해 여한십가문(麗韓十家文)을 만들고 그 서문에 “창강 김택영 선생이 개성에서 우뚝 일어나 고문으로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고 칭송했고, 청나라 개혁정치가 양계초(梁啓超)도 “한 나라의 국민성은 문학으로 나타난다”는 서문을 썼다.

천성이 강직한데다가 올곧은 충의정신의 큰 스승인 조부의 자결현장을 본 이견창은 탐학(貪虐)으로 이름난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을 탄핵한 일로 유명하다. 그러나 조병식을 탄핵하고도 한말의 부패한 집권세력에 의해 북변 벽동(碧洞)으로 유배를 갔던 이견창은 유배가 풀렸으나 벼슬길에 회의를 느껴, 벼슬길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종의 간곡한 부름에 1880년에 경기 어사로, 1893년에 함흥민난을 다스리는 안핵사가 된다. 1890년에 한성부 소윤 때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점을 막고자 하는 과정

에서 이홍장(李鴻章)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견창은 오직 국익(國益)과 백성의 권익(權益)만을 생각하는 정치가였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내직이 싫으면 외직인 황해감사라도 가라는 고종의 권유를 거절하자 벼슬길과 유배길을 택일하라는 고종의 하명을 받고 유배를 택한 이견창은 새벽 파루가 울리자 고군산도로 유배를 떠나는데, 남대문 밖에서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부재(溥齋) 이상설(李相畵)과 작별하고 고군산도로 귀양간지 2개월 만에 특지로 풀려나 강화로 들어간 후 1898년 6월 18일 47세를 일기로 비교적 짧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서울 땅을 밟지 않았다.

이견창은 민시우국(憫時憂國), 시대를 고민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를 짓는다. 전가추석(田家秋夕)이나 협촌기사(峽村記事) 같은 절창의 시는 ‘상시분속(傷時憤俗)’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는 시들이다.

국가나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난하고 병들어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들의 아픔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찡찡하고 생동적인 현실비판 시를 짓기에 이른다. 백성들의 아픔에 한없이 속상해하면서도 그가 목격했던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의 흔이 서린 곳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곱고 아름다운 시어로 생생하게 묘사해냈다.

조선의 직신(直臣)으로, 누구에게도 아부하거나 굽실거릴 수 없던 영재, 암행어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는 탐관오리들을 한 치의 양보 없이 무섭게 징치하는 무서운 어사였다. 오죽했으면 고종황제가 도신(道臣)이나

수령(首領)을 제수할 때 올바른 목민관(牧民官) 생활을 당부하면서 “만약 잘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이견창을 암행어사로 파견하겠다”고 했겠는가. 당시의 벼슬아치들이 암행어사 이견창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하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또한 그는 한국 당쟁사를 객관적으로 저술한 당의통략(黨議通略)에서 8가지 당쟁의 원인을 지적했다.

- ① 도학(道學)이 너무 중(重)한 것
- ② 명분(名分)과 의리(義理)가 너무 엄(嚴)한 것
- ③ 문사가 너무 번잡한 까닭
- ④ 형옥(刑獄)이 지나친 것
- ⑤ 대각(臺閣)이 너무 준엄한 것
- ⑥ 관직(官職)이 너무 청정한 것
- ⑦ 문벌(門閥)이 너무 성대(盛大)한 것
- ⑧ 태평시대(太平時代)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민영규(閔泳珪) 교수의〈강화학(江華學) 최후의 광경〉을 보면

석전(石田) 황원(黃瑗:황현의 아우)이 기거하던 월곡(月谷)마을 뒤에 구례 천은사(泉隱寺)로 들어가는 월곡저수지가 있다. 석전(石田)의 나이 75세인 1944년 2월 17일 이른 새벽, 호남광부(湖南狂夫)는 월곡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옷깃에는 꼬깃꼬깃 접어서 꿰맨 시 한 수가 숨겨 있었다.

위당(爲堂)이 석전옹(石田翁) 자침(自沈)의 자초지종의 부고를 받기는 그로부터 4년 뒤, 조카 황위현의 부탁을 받고 ‘석전(石田)선생 묘비명(墓碑銘)’을 찬(撰)하면서 한마디를 못

박고 있다.

생전에 그를 잘 아는 사람도 (구례지황 추시자계피지·求禮之黃 趨時者皆避之) 즉 ‘구례의 황 아무개 하면 모두들 자리를 피했다’라고 적고 있다. 당국의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석전(石田)의 만형, 매천(梅泉) 황현(黃玗)이 죽을 때,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오무가사지의·吾無可死之義) 라는 유서를 남겼다. “황은(皇恩)이 망극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녕불통재(寧不痛哉)라. “그저 분해서”라는 것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09년, 사법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매천(梅泉)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상실한다. 그는 죽기 전에 한 번 더 영재 이견창의 무덤을 둘러보는 것이 마지막 한풀이로 남는다.

구례에서 서울까지 천리 길을 혼자서 걸었다. 서울 화동으로 난곡(蘭谷) 이견방(李建邦)을 찾고, 강화도 사골로 경재(耕齋) 이견승(李建昇)을 찾아, 셋이서 건평리 어느 초가집 뒷켠에 애 무덤처럼 누어있는 영재(寧齋)의 무덤 앞에 엎드린다. “죽어서 외롭다고 말 것이, 그대는 살아서도 혼자가 아니었던가.”(무용비독와·無庸悲獨臥, 재일기리군·在日己離群).

역새 우거진 풀밭에 다소곳이 술잔을 부으면서 매천이 남긴 오율(五律)의 한 구절이다. 돌아오는 길에 셋이서 서울 남산에 올라 궁궐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하직의 통곡을 고한다. “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서러울 따름입니다”(오불원 강자식약 이약자 견식어

강 · 吾不怨 强者食弱 而弱者 見食於強).

매천(梅泉)과 석전(石田) 형제의 두 죽음 사이에 1910년-1944년까지 35년의 세월이 개재하며, 石田의 죽음은 해방되기 1년 전의 일이다.

매천(梅泉)은 말했다. 그저 슬퍼서 죽는다고, 그리고 매천(梅泉)의 아우 석전(石田) 황원(黃瑗)은 영재(寧齋)도 가고, 경재(耕齋)도 가고, 형인 매천(梅泉)도 갔다. 외롭게 슬픔을 가눌 길 없어 역시 통곡하고 구례의 월곡저수지에 몸을 던지니 이때가 해방 한해 전의 일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이것이 강화학과 학인들의 최후의 선택이다.

3. 강화학과 학인(學人)들의 독립운동

강화학파의 맥(脈)은 독립운동으로 연결된다. 이시원(李是遠) 막내 손자 이견승(李建昇)은 1905년(을사년) 가족의 저지로 자결 실패 후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다가, “내가 비록 방 안에서 말라 죽은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하면서 의연히 일어나 학교를 건립했다. 그 학교가 1906년 이견승이 강화도 사기리에 설립한 계명의숙(啓明義塾)이다. 학문으로 민족의 뿌리를 지키고, 교육으로 먼 미래에 대비해야 했다.

경재(耕齋) 이견승(李建昇)은 6촌 동생 난곡(蘭谷) 이견방(李建芳)과 충북 진천의 전 대사헌 기당(綺堂) 정원하(鄭元夏)와 원임참판(原任參判) 문원(紋園) 홍승헌(洪承憲), 그리고 경남 의령의 수파(守坡) 안효제(安孝濟) 등과 경술국치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910년 망명길에 오른다.

1910년 9월 24일 이날 새벽, 이견승(李建昇)은 사당 문을 열고 위패 앞에 마지막 하직을 고하고 이웃 마을로 불일 보러가는 것처럼 남의 눈을 피해 대지팡이 하나를 짚고 사골 집을 나선다. 멀어져 가는 고향 마을을 뒤돌아보며 (보보 회고 출동문 · 步步 回頭 出洞門) 3장의 시(詩)를 읊는다.

온수리 신주현(申周鉉) 집에서 이날 밤을 지새웠다. 9월 26일 밤늦게, 승천포 나루를 거쳐 개성에 도달한다. 홍문관 시장 원초(原初) 왕성순(王性淳) 집에서 여장을 풀었다. 진천의 홍승헌과 서울의 이견방(李建芳)이 여기서 회동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견승은 홍승헌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10월 1일 진천의 홍승헌이 도착했고, 같은 날 난곡 이견방과 조카 범하(範夏)도 당도했다. 이견승은 개성 왕원초집에서 홍승헌을 기다리는 6일간에 명나라 황종희(黃宗羲) 저서인『명이대방록 · 明夷待訪錄』을 접하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의 룡소라고 불리우던『明夷待訪錄』을 조선의 지식인 선비가 처음 본 책이다. 이 책을 본 이견승은 마음이 요동쳤다.

원래는 이견방도 망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두 떠나버리면 조선 양명학 계승자가 없다. 이들이 가는 길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에 누군가는 식민지 땅에라도 살아남아서 양명학을 전수해야 했다. 이미 생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견방은 후학 양성을 위해 남아야 했다.

그 덕분에 일제 식민사학을 비롯해 일제에 들러붙은 학문자세를 허학(虛學)이라고 비판했던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같은

학자가 그 문하에서 배출될 수 있었다.

이건승은「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에서 황종희가 말한 군왕(君王)이란 무엇이며, 국가란 또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건승에게는 생소한 말도 아니다. 형인 이진창이 저술한『독맹자·讀孟子』편에 맹자가 이르기를 첫째가 백성(百姓)이고, 둘째가 사직(社稷)이며, 셋째가 군왕(君王)이 된다고 갈파했기 때문이다.

10월 2일 밤 이진승(李建承)과 홍승헌(洪承憲)은 개성 성서역에서 신의주행 열차에 몸을 싣고, 왕성순·이진방·이범하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못을 망명길을 떠났다. 떠나는 자나 남는 자의 심정은 같았다. 그 길은 몸은 죽고 정신이 사는 길이고, 현실에서는 죽고 역사에서는 사는 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길을 택했다. 그들이 망명을 떠날 때 시대상황은 광복은커녕 그 조짐조차도 찾기 어려웠다.

명이대방록의 저자인 황종희가 25세 때인 1644년 명나라가 망한다. 여진족에 대한 항거는 강남땅에서 한참 계속되고, 마지막 희망이던 계왕(桂王:永明王)이 토벌꾼에게 참살되자, 53세의 황종희는 군왕이란 무엇이며, 국가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깊이 반성해 볼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1663년(강희2)에 쓴 책이『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이다.

명이대방록은 청말(清末) 혁명운동에 큰 영향을 준다. 1897년 겨울 청 왕조가 거의 끝날 무렵 가사동(譚嗣同), 황준헌(黃遵憲), 양계초(梁啓超), 옹희령(熊希齡) 등이 중국 호남 장사(長沙)에 시무학당(時務學堂)을 개설하고 40명의 학생에게 인권을 주장하는 교재로 사

용하면서부터 유명해졌다. 이때 양계초의 나이가 25세였다.

명이대방록은 중국 5.4운동 당시 프랑스 혁명 때 루소의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과 같은 혁명지침서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황종희는 "천자(天子)는 객(客)이요, 인민(人民)이 주인이다." 라고 제창했다. 이는 결국 "민(民)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社稷)은 그 다음이다." 라는 맹자(孟子)의 민본주의 내지 역성혁명설에 기초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근대 혁명기에 주권재민설과 국민독재론을 주창한『장 자크 루소』와 동일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이대방록은 1974년도 삼성문고 총서에서 제1번 '독일국민에게 고함'에 이어 제2번으로 간행된 책이다.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告)함'이 나폴레옹 군대의 침탈로 국망에 처한 독일의 위기의식을 강렬히 고취한 글이듯이, 황종희의 명이대방록 또한 그 근본을 같이하는 고전이었던 셈이다.

나는 《피히테와 황종희》는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본다. 이는 마치 요시다쇼잉(길전송음·吉田松陰)이 일본 야마구치현(압구현·岩口縣) 하기(추·萩)시에서 100년전에 다다미 8장 크기의 쇼카손주쿠(송하촌숙·松下村塾)을 열고 명치유신을 태동시킨 것과 같다고 본다.

쇼카손주쿠(송하촌숙·松下村塾)에서 정한론자(征韓論者)인 사이고 다카모리(서항용성·西鄉隆盛), 명치유신(明治維新) 3걸(傑)인 기도 다카요시(목호효윤·木戶孝允), 막부타도(幕府打倒)의 선봉(先鋒)인 다카스기 신사쿠(고삼진작·高杉晋作), 군부

실력자(軍府實力者) 총리(總理) 야마가타 아리토모(산현유봉 · 山縣有朋), 한국병합(韓國併合)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 伊藤博文) 등 막부(幕府) 말기의 많은 인재들을 배출시켰다.

길전송음(吉田松陰)은 극우적 인물로 우리에게 엄청난 폐해를 저지른 사상적 핵심의 원조다. 길전송음은 야스쿠니신사(안국신사 · 安國神社)의 제1신이며, 사카모도료마(판본용마 · 坂本龍馬)는 일본 1,000년의 역사에 제1위로 꼽는 인물이다.

시바 료타로(사마요태랑 · 司馬遼太郎, 본명 북전정일 · 福田定一)의 작품인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1위이다. 일본에서 2,000만권 이상 팔릴 작품이며, 제국의 아침(용마龍馬가 간다)는 명치유신을 이끌어내고 거사 직전에 비극적으로 죽은 사카모도료마를 그린 작품이다.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은 명치시대를 미화하고 러 · 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보는 극우적 사관이 반영된 작품이다. 길전송음의 논리는 20년 후에 정한론과, 대륙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공영권사상(大東亞共營圈思想)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길전송음의 삶을 존경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며, 현재의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安倍晋三)의 정책을 볼 때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준다.

한말의 조선은 조선 왕실 일부와 집권층 노론(老論)이 조직적으로 매국에 나선 나라였다. 일본군은 남한대토벌이란 작전명령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삼남 일대의 의병들을 그물치듯 살육했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광복(光復)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길은 성현(聖賢)의 글을 읽은 식자(識者)가 갈 길이었다.

이건승과 홍승헌이 신의주 사막촌에서 강물 얼기를 기다리던 10월 7일 일제(日帝)는 76명의 왕족(王族)과 사대부(士大夫)들에게 작위(爵位)와 은사금(恩賜金)을 수여했다. 이른바 ‘하방공로작(合邦功勞爵)’이었다.

다음날 1,700여 만원의 임시 은사금(恩賜金)을 각 지방장관에게 내려 친임관 · 칙임관 등 대한제국 전 관료와 양반 · 유생들에게 ‘은사공채’를 주었다. 유림출신 독립운동가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은 자서전(벽옹 · 璧翁 칠십삼년 회상기 · 回想記)에서 “그때에 왜정당국이 관직에 있던 자와 고령자 그리고 효자 · 열녀에게 은사금이라고 돈을 주자 온 나라의 양반들이 뿔뿔이 좋아하며 따랐다”고 전하고 있다.

김창숙은 “나는 혹 이런 자들을 만나면 침을 뱉으며, ‘돈에 팔려서 적에게 아첨하는 자는 바로 개돼지다. 명색 양반이라면서 효자 · 열녀 표창에 끼어든단 말이나?’ 라고 꾸짖었다.” 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늘 “나라가 망하기 전 사대부가 먼저 망해서 양정(梁庭)에 춤추는 자들 대부분 최(崔)가, 노(盧)가더라”라는 시구를 읊으며 통곡했다고 말했다. (망국선망사대부 · 亡國先亡士大夫 양정무도 반최노 · 梁庭舞蹈半崔盧)

〈참고〉

형남 물가에서 소를 타다(형저기우·荊渚騎牛)

황현(黃玼)

나라가 망하면 먼저 사대부가 망하나니

양정에서 춤추는 이는 반이 노(盧)씨와 최(崔)씨인데

형남의 진사 양진은 머리가 눈같이 희도록
괴롭게 춘강을 마주하여 목로를 심었다네

亡國先亡士大夫

梁庭舞蹈半崔盧

荊南進士頭如雪

倦對春江種木奴

*이 시는 매천 황현의 '형저기우(荊渚騎牛)' 시(詩)에서 인용된 것으로 당(唐)나라가 망(亡)했는데 귀족인 최씨(崔氏), 노씨(盧氏)들이 양(梁)나라에 붙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당시 집권층 노론(老論) 유력가문 출신들이 매국에 앞장선 것을 비판하는 황매천(黃梅泉)의 시가 김창숙(金昌淑) 지사(志士)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매국에 앞장선 이들의 것이었다.

12월 초하루 새벽 이진승과 홍승헌은 중국인의 썰매에 몸을 싣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安東縣)(현재 단동) 구연성(九連城)에서 이국의 첫 밤을 보냈다.

이튿날 새벽 두 선비는 북상(北上)길에 올랐고 600리길을 달려 12월 7일 첫 목표지인 흥도촌(興道村)에 도착했다. 이 마을에 정원

하(鄭元夏)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유화현(柳花縣)·삼원보(三源堡)를 지향한 이석영(李石榮)·회영(會榮)·시영(始榮) 등 이른바 7가족이 압록강을 건넌 것은 이진승보다 10여일 뒤인 12월 13일이다. 1911년 늦겨울 의령에서 수파 안효제(安孝濟)가 합류했다. 이들은 회인현(懷仁縣)과 통화현(通化縣)을 오가며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시한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하나같이 송장이 되어 돌아오는데 16년이 걸린다.

1914년 8월 16일 문원(紋園) 홍승헌(洪承憲)이, 1916년 12월 16일 수파 안효제가, 1924년 2월 18일 경재 이진승이, 1925년 7월 4일 기당 정원하 등 모두가 만주에서 외롭게 생을 마치고 뼈만 돌아와 이진방에 의해 땅에 묻히게 된다.

한편 강화학파에 속하는 석오(石吾) 이동녕(李東寧)은 1904년 만주 용정(龍井)에서 서전 의숙(瑞甸義塾)을 운영했으며,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선포하는 등 1917년 사망할 때까지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 활약했던 부재(溥齋) 이상설(李相高)역시 강화학파의 학문을 통해 성장한 인물이다.

1916년 초부터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병석에 누워 1년을 두고 투병했으나 병세는 더하여 중병으로 악화되고 토혈이 시작되었다. 이동녕(李東寧), 백순(白純) 등 동지들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따뜻한 니콜리스크(쌍성자·雙城子)로 옮겨 정양케 하고 있을 때 극비리에 고국에 연락하였다.

부재의 외아들 이정희(李庭熙)가 장가드는

잔치 날 노령 니콜리스크로부터 부재가 위독하다는 전문을 받고, 아들 이정희와 그의 어머니 서씨부인이 니콜리스크로 달려가 부재(溥齋)를 임종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가족과 이동령, 조완구(趙琬九) 등은 유언에 따라 아무르강 가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화장해 재를 아르르강에 뿌렸다. 그리고 선생의 유고와 유품 등도 거두어 불살랐다.

이상설선생은 임종을 맞으며 “내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어찌 죽은 영혼인들 고국 땅을 감히 밟으랴, 내 죽거든 화장

해서 재를 시베리아 벌판에 날리랴. 그리고 조국의 독립이 오기 전까지는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유언했다.

2001년 10월 18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우수리스크 수이푼강 유역에 기념비를 세웠다. 우수리스크 수이푼강은 현재 라즈돌리노에 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 옆에는 발해 성터가 남아 있다. 필자도 2010년 서울문화사학회장 재임시 회원들과 함께 우수리크 수이푼강에 가서 선생의 명복을 빌었다.

* 병술국치후 일제가 준 작위와 은사금 내역

1. 이재면(李載冕) : 대원군의 장손, 고종(高宗)의 형, 궁내부대신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참가한 공로로 최고액 166억원
2. 이완용(李完用) : 백작 벼슬을 하사 받고 30억원
3. 이지용(李址鎔) : 백작 벼슬을 받고 20억원
4. 송병준(宋秉駿) : 자작 벼슬을 받고 20억원
5. 고영희(高永禧) : 자작 벼슬을 받고 20억원
6. 이재각 : 왕족으로 후작을 받고 33억 6천만원
7. 이재완 : 왕족, 후작을 받고 33억 6천만원
8. 박영효(朴泳孝) : 조선귀족회 회장, 중추원 부의장 56억원
9. 윤택영 : 순종의 장인으로 후작을 받고 100억 8천만원
10. 이준용 : 대원군의 손자 신궁봉경회 총재로 32억 6천만원
11. 이용구(李容九) : 귀족은 아니지만 대한제국을 병합하는데 일조, 20억원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강연

유교(儒敎)의 종교성(宗敎性)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박광순(朴光淳)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전남대 명예교수)

1. 머리말

나는 종교학이나 철학과는 관계가 없는 일개 경제학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유교에 관한 공부는 체계적으로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한국 도학의 거장이요, 우리 호남인의 자존심을 후학들에게 심어 주신 하서(河西)선생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흠모하는 이 자리에 와서 유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외도(外道)요, 크게 주제 넘는 일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후학으로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에 두루 뛰어나 '동방(東方)의 주자(周子)'라 칭송받아 문묘에 배향된 하서선생님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염(念)을 표하고자 함이요, 다른 하나는 평소 존경하는 박병호(朴秉濤) 필암서원(筆巖書院) 원장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전한 김재수 교수의 전언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문정공(文正公)께 헌

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쉽게 수락해버렸다. 이런 의무(苦役)가 뭐 따르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사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서울에서 걸려온 박(朴)원장님의 전화는 제향(祭享) 후에 강의(연설)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으나 한번 한 약속을 당일로 거절하는 것도 경솔한 짓이라 생각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다만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어 빈축이나 모면했으면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 줄문은 필자가 연구한 결과로 얻은 소견(所見)이라기보다는 국내외의 전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 소개하는 역(域)을 벗어나지 못한 소략한 글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아무튼 줄고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과연 유교가 종교인가 하는 점 이요, 둘째는 만일 종교라면 그 본질은 무엇이며, 날이 갈수록 왜 신도가 이토록 줄어드는 것일까? 적어도 통계상(표면적)으로는 거의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장

차 유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의 지성들은 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II. 통계상으로 본 유교신자의 동향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물론 다른 조사에서도 유교를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에 넣고 있다. 이는 유교도 종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다음 장에서 유교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유교도 종교라는 전제하에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한국인의 종교별 분포(%)

구 분	1985	1991	1994	1999	2004	2014
종교인구비율	42.6	54.0	49.9	53.6	53.0	50.0
불교	46.9	51.2	48.9	49.0	24.0	22.0
기독교(개신교)	37.7	34.4	36.5	34.7	21.0	21.0
천주교	10.8	10.6	11.7	3.0	7.0	7.0
유교	2.8	1.8	0.8	1.2	-	-
원불교	0.5	0.6	0.6	0.4	-	-
천도교	0.2	0.3	0.2	0.1	-	-
기타	1.1	1.1	1.3	1.5	1.0	0

* (주) 종교인구비율은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종교 인구의 비율. 2014년 유교인구는 원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기타 종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합쳐도 1%에 미달하고 있음.

* 자료: 1985~1999년은 통계청 자료, 2004~2014년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교인구는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첫 년도(1985년)에는 2.8%를 점하고 있었으나 차츰 줄어 1999년에는 1.2%, 2004년에는 기타 종교를 모두 합쳐서 1%, 최근(2014)년에는 기타 종교를 모두 합쳐도 %를 셈할 수 있는 숫자에 미달하여 아예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의 조사가 통계청과는 달리 한국갤럽이 2,000인 미만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적고, 또한 설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이런 점에서 최근에 실시한 「센서스」결과가 주목된다).

설문내용의 부적합성은 역시 ‘유교적 성향’을 묻는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금년 초에 내놓은 위의 『보고서』를 보면 “유교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설문을 하고 있는 데, (1)항은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2)항은 〈자식은 자기 생각보다 부모에 따라야 한다〉고 묻고 있다. 아마도 설문자(갤럽연구소)는 ‘남존여비’나 ‘가부장적 권위’를 유교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85년에는 (1)항에 대해서는 7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2014년)에는 43%로 크게 줄고 있다. (2)항의 설문에 대해서는 48%에서 32%로 줄고 있어 두 항 모두 감소추세인 것만은 확실하다(〈동 보고서〉 54~55쪽). 다만 위의 두 항목이 얼마나 유교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관한 의문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의문은 「동 조사」의 〈선호하는 장례

식)을 묻는 설문에 유교식(전통장례)을 선호한 응답자는 36%로서 불교식(25%), 기독교식(25%), 천주교식(10%), 기타(3%), 모름(1%)보다 단연 많은 데서도 입증된다 할 것이다(『동 보고서』229쪽, 표 51).

한편 종교시설의 분포를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3시 통합(2010.3) 이전에는 총 279개소가 존립하고 있었는데, 그 종교별 분포는 불교 75개소, 유교 1개소, 천주교 9개소, 개신교 172개소, 통일교 7개소, 대순진리교 2개소, 여호와의 증인 3개소, 기타 5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유교는 1개소로 예상 외로 적은 데, 그 유교시설은 아마도 옛 '창원향교'를 가리키는 듯하다. 본래 향교는 각 골(군·현)에 한 곳씩 두는 게 관행이었으므로 통계에 잡힌 건 그 향교인 듯하다. 그러나 3시가 통합된 후인 2013년 5월 현재는 10개소로 늘어난다. 이렇게 급증한 까닭은 前 마산시와 진해시의 향교가 포함됨은 물론, 통합이전의 조사에선 누락되어 있던 도봉서원을 비롯한 7곳의 서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창원시편: 집필자 이범홍, 2014 참고)

아무튼 유교의 신도나 시설의 수가 상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설문내용이 부적절하여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연유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첫째로 종교의 본질,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를 표면에 나타난 禮敎性(윤리 도덕)에만 치중하여 그 종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학(儒學)으로만 생각하여 그와 같은 각도에서 설문한데서 빚

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유교는 본래 전문사제(專門司祭)가 없고 각 가정의 당주(當主)가 유교의 중요한 종교의례인 제사를 주재하여 모시며, 사찰이나 교회처럼 특별한 예배공간이 없이 가정에서 행한다고 하는 '유교의 日常性'과 '교단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특질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Ⅲ. 유교의 종교성—'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

1) 다양한 종교의 정의

유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란 무엇인가? 그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그러나 종교를 짧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종교는 인간의 문화 현상 가운데서 가장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보판행박(保坂幸博) 씨가 "어떠한 표현을 다 활용해서 종교의 정의를 안출(案出)해 보고자 노력해도 종교에는 본질적으로 규정부능성(規定不能性)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타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비적(類比的)·공감적(共感的)'인 자세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염두에 두면서 종교에 관한 몇 사람(기관)의 정의를 정리해보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종교(宗教)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뜻하는 불교용어였는데, 그 말이 19세기말 일본에서 서양의

‘religion’을 종교로 번역하면서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본래 religion의 어원은 라틴어 ‘religio’로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에서 연유한다고 설명한 다음, 종교는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경험에 기반을 둔 교의(敎義)·의례(儀禮)·시설(施設)·조직(組織)을 갖춘 사회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종교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로서 보는 견해, 둘째는 신성감, 외경의 감정 등 종교에서 보이는 특정한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마지막으로 특정한 가치체계를 갖춘 인간 활동으로서의 정의이다.

위의 지적대로 종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 좁은 지면에서 하나 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고의 주제인 유교와 관련해서 몇 분의 견해만 들어보자.

먼저 이희승(李熙昇)선생의『국어대사전』(1971년, 제12판)을 보면, “초인간적인 숭고·위대한 것을 외경하는 정의(情意)에 의거, 이것을 인격화하고 신앙·기원 및 예배함으로써 안심입명(安心立命)·축복·해탈·구제를 얻기 위한 봉사의 생활을 할 때, 그 관계를 말함”이라 규정하고, “교리나 행사의 차이에 따라 기독교·불교·회교·천도교 등이 있음”이라 부연하여 유교는 종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유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고 있다. 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로 인정하는 이는 서

울대학교의 금장태(琴章泰) 교수를 들 수 있겠는데, 금 교수는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宗教의 定義)은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우선은 인간의 삶의 영위로서 종교를 파악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교를 성립시키는 기본요소는 종교의 객관적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부처·영(靈)·법·원리·도(道)라고 불리는 초월적,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특정한 관념이다. 종교는 이러한 종교 관념을 핵으로 하여 일정한 사회집단(종교집단)을 칭한다. 이와 같이 종교는 인간의 힘,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한 관념 및 관념체계에 기반을 둔 교의, 의례, 시설, 조직을 갖춘 사회집단이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교의 종교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유교의 종교성을 배제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즉 청말(淸末) 내지 한말(韓末), 서구의 무력과 문물이 압도적으로 침투함에 따라 유교 전통사회의 기반이 붕괴되는 대파국과 함께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바로 이 시기에 양계초(梁啓超) 등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유교의 종교성을 부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유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한편 20세기 최고의 사회과학자요, 특히 종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 Weber)는 종교를 “다수의 신봉자를 자기 주변에 모을 수가 있는 종교적인, 혹은 종교적으로 제약된 생활규제의 체계(Systeme der Lebensreglementierung)라 규정하고”, 유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유태교를 추가

하기도 한다. 요컨대 유교를 세계종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그의 『종교사회학논집』의 서언에서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교의 종교여부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일된 견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문부성(文部省) 종무과(宗務課)는 1961년 『종교(宗教)의 정의(定義)를 위요한 제문제(諸問題)』(안본영부·岸本英夫 외편·外編)라는 책을 편찬·발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려 104가지의 종교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그 중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신성한 절대자를 상징하여, 그에 대해서 외경감(畏敬感)을 가지고 절대귀의(絕對歸依)한다’고 하는 유일절대신(唯一絕對神)을 신앙(信仰)하는 것을 종교라 규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 의하면 ‘야요로스(팔백만·八百萬)의 신(神)을 모시는 일본인의 종교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 야요로스의 신 가운데는 조상신(祖上神)도 들어있을 것이니 유교는 당연히 종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의 가정마다 소중히 모시고 있는 불단(佛壇)은 실은 부처님과 함께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는 작은 사당(祠堂)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필자의 얘기가 조금은 이해 될 것으로 믿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교의 종교여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애매한 입장을 언제까지고 지속한다면 논의를 더 이상 전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이 문제를 다룬

명저, 일본 대판대학(大阪大學) 가지신행(加地伸行) 교수의 소견(所見)을 소개해, 이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지(加地) 교수의 『유교란 무엇인가(儒教とは何にか)』(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라는 저서는 1990년 일본에서 첫판이 나온 이래 4년(2004)간에 10판이 나올 정도로 널리 읽히고 있는 명저(名著)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교(儒教)의 책(本)』이라는 방대한 책을 편찬하여 중국, 한국, 일본의 유교와 원시 유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교를 여러 각도에서 논하여 유교에 관한 문헌과 키워드를 해설하고 있는 일종의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대저를 편찬한 바도 있는 중국사상의 대가이다.

그의 『유교란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식(원감각·原感覺)과 실천하고 있는 행위, 즉 ‘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 및 사후관(死後觀) 등이 유교의 종교성(宗教性)이라는 측면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필자의 과문 탓이길 바란다. 따라서 여기에선 유교에 관한 문외한인 필자가 군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유교,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라지지 않고 흐르고 있는 유교적 원감각(原感覺)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아래의 서술은 어디까지나 가지(加地) 씨의 소견의 소개라는 점을 밝혀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교를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종교 그 자체가 논리의 세계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보판행박(保坂幸博)이 말한 “어떠한 표현을 다 활용해서 종교의 정의를 안출(案出)해 보고자 노력해도 종교에는 본질적으로 규정부능성(規定不能性)이 남게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종교의 정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80년 영국의 종교학자요 기독교신자인 히크(J. Hick)가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저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영국은 개신교의 나라다. 그런데도 그가 이와 같은 논문을 내놓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950~60년대 초, 영국은 경제성장의 필요상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받아들여 다원화사회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그리스도교협의회」는 1977년 11월, “우리들은 이제 영국이 여러 인종·문화·종교로 이루어진 다원화사회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생활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원화된 사회는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히크의 논문은 그러한 「협의회」의 결정을 사회적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히크의 얘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신교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가톨릭(특히 예수회)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조상숭배·祖上崇拜)를 인정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가톨릭의 조치가 바로 기독교가 다신교를 인정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교황청은 제사를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의 영

혼에 대한 섬김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 단정하는 것도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관해 진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지노부 유키(가지신행·加地伸行)교수는 종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종교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어서 유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에 관한 설명을 통해 유교의 종교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종교에 관한 규정은 간단명료하다. 그는 “종교란 죽음(死), 또는 사후(死後)에 관한 설명자(說明者)”라 정의한 다음, 유교의 종교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금 지루하지만 그의 논지를 간추려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만일 종교에서 죽음에 관한 설명을 제외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윤리도덕(예교성·禮敎性)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종교에서 윤리도덕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죽음(종교성·宗教性)에 관한 문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안은 인용자. 다시 말하면 종교는 예교성(禮敎性)과 종교성(宗教性)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후에, 유교의 종교성은 조상숭배 및 그 제사(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의 일측면一側面)에 잘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같이 가지(加地)교수는 그간 우리들이 경시하거나 간과해 온 유교의 종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하고 있는 유교의 종교성에는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 대단히 ‘일상적’ 이어서 흔히 우리가 종교하면 떠올리는 신성감이나

외경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거기에 유교의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교의 발전 과정을 요약해보자. 유교는 25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나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선 지면관계로 단계별 자세한 설명은 줄이고 그 요지만을 들어보겠다.

① 원시유시대(原始儒時代)-인류가 무엇인가 영적존재를 의식하고 그것과의 교섭을 갖고자 할 무렵부터 기원전 6세기, 이른바 공자교단(孔子敎團)=원시유가(原始儒家)의 등장까지. 처음에는 사(死) 장(葬), 기우(祈雨) 등의 신사(神事)나 의례(儀禮)를 무사(巫史샤먼)들이 전담. 이게 '원시유(原始儒)'의 원류(源流)로서 샤먼의 활약기

② 유교성립시대(儒敎成立時代)-BC 6세기~BC 2세기. 공자(孔子 BC 551~BC 479: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가 등장하여 지금까지의 원시유의 음사사교적(淫祠邪敎的)인 것을 버리고 중국인의 전통의식(傳統意識)의 모든 것(詩樂禮 등)을 仁(사랑·아버이 사랑=孝)이라는 장(場) 안에서 조직화시켜 탁고개제(託古改制)하는 가운데 과거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이 규범으로 고양됨으로써 유교가 성립된 시기. 그러나 공자(孔子)는 그 모든 전통의 창시(創始)를 주공(周公)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저 술이불작(述而不作)이라 강조한다(原始儒와 原始儒家의 구별). 2세기 전한(前漢) 무제(武帝)가 관제를 바꾸고 유교를 국교화(國敎化)할 때 까지. 이 단계까지는 아직 예교성과 종교성이 미분리 상태에 있었음.

③ 경학시대(經學時代)-BC 2세기~20세기: 전한(前漢) 무제(武帝)의 관제실시 이후, 경학(經學) 중시와 함께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유교의 예교성(禮敎性)과 종교성(宗教性)이 분리·이원화되어, 예교성(禮敎性)이 표층에 크게 부상되어 마침내는 정치규범으로 발전하는 시기. 특히 12세기 이후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철학성(哲學性)이 부상된다.

④ 유교(儒敎)의 내면화시대(內面化時代)-현대~: 유교의 예교성(표층의 윤리도덕, 정치이데올로기)은 변질, 혹은 소멸되었으나 중국인을 비롯한 유교문화권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심층(原感覺) 속에 그 종교성('생명론으로서의 효' = 조상숭배祖上崇拜)은 살아 있는 시기

2) 중국인의 現世觀과 죽음(死)에 대한 공포

그러면 이제부터 유교의 종교성을 상징하는 조상숭배 및 그 제사, 즉 '생명론으로서의 효'에 관해서 이야기를 옮겨 보자. 먼저 유교가 형성될 무렵부터 연면하게 이어져오는 중국인의 현세관(現世觀)부터 살펴보면, 와쓰지 데쓰로(화십철랑和心哲郎: 경도대학京都大學 및 동경대학東京大學 교수를 지낸 일본윤리사상사日本倫理思想史의 대가大家)는 인간의 의식, 우주관, 종교관의 형성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풍토(風土)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 예로서 인도(印度)(남아시아)와 같이 찌는 듯한 자연환경 아래서는 인간이 살아 있는 그 자체가 고행(苦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불교를 비롯하여 인도의 여러 종교들은 세상

의 고해에서 구제되어 해탈하기를 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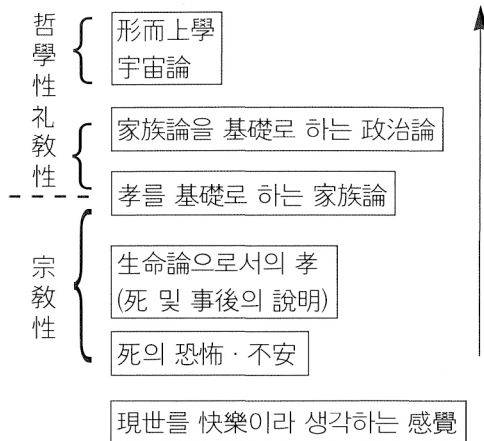
한편, 중근동(中近東)(西아시아)의 사막처럼 더욱 가혹한 자연환경 아래서는 인간은 그저 구세주(救世主)를 찾아 천국을 꿈꾸며, 선택의 여지없이 유일신(唯一神)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도나 중근동에 비하면 중국(東北아시아)은 살기 좋은 곳이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現世)은 즐거운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인의 현실적(現實的)·즉물적(即物的)인 사고 및 태도는 여기에서 태어난다. 『논어(論語)』(유교의 최고 경전)는 고(苦)가 아니라 락(樂)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음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논어』의 첫머리가 ‘부역열호(不亦悅乎)’(삼호·三乎)로 시작됨은 그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현세관(現世觀)= 즉 이 세상은 즐거운 곳, 살기 좋은 곳, 언제까지고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즐거움에 넘치는 이 세상에서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살고자 원한다. 내세(來世), 천국(天國), 지옥(地獄) 등, 현실감없는 것들은 중국인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자 진시황(秦始皇)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현세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죽음은 더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죽음이 더없는 공포라면 그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납득시켜줄 수 있는 설명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해서 그 설명에 성공한 것이

바로 유교라고 가지(加地) 교수는 설명한다.

*유교(儒敎)의 이론 구성



3) 유교의 종교성= '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

그러면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에 관해 얘기해보자. 그들은 사후(死後), 다시 현세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방향으로 이론의 틀을 구상한다. 즉 생(生)과 사(死)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교에선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 정신의 주재자는 혼(魂), 육체의 주재자는 백(魄)인데, 혼(魂)과 백(魄)이 일치되어 있을 때가 생(生), 분리되면 사(死)라 이해하고 있었음은 우리가 두루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송나라의 장재(張載)(1020~1077. 장자(張子)도 물체의 질료(質

料)인 기(氣)의 취산(聚散)을 통해 생사(生死)를 설명하며, 인간은 기 중에서도 뛰어난 기, 즉 정기(精氣)가 모인 것이라 설명한바 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만일 분리되어 있던 혼과 백을 다시 불러 와 일치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생(生)의 상태가 소생해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혼과 백을 부르는 의식이 바로 초혼의례(招魂儀禮), 곧 제사(祭祀)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유가(儒家)는 이 초혼의례를 기초로 해서 커다란 이론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초혼의례(招魂儀禮)란 조선(祖先)(上) 숭배(崇拜), 조령신앙(祖靈信仰)을 근핵(根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儀式)를 모시게 된다. 바로 이 제사(祭祀)는 금장태(琴章泰) 교수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교의 종교적 특징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고대국가형성 이전의 중국인들의 신앙의 대상인 신(部族神-諸神)은 매우 다양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들은 고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하나의 신(一神)' 관념이 커지면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신들은 천(天), 곧 상제(上帝) 아래 귀속된다. 따라서 제신(諸神)에 대한 신앙은 천(天)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기능적인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제신(諸神)들은 천(天)의 명령에 따라 각각의 직분을 맡은 존재로서 천(天)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불가佛家에선 '권현權現')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인간은 여러 신들을 통해 상제(上帝)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유교의 인간관은 인간과 하늘의 근원적인 합일(合一)을 믿고 있다. 따라서 조상에 대한 숭배는 조상을 하늘(天)에 짝하게 함으로써

천(天)에 대한 제사로 통하게 된다. 이처럼 신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와 질서를 가지고 인간과 마주 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천(天)과 조(祖)(上神)는 만물과 인간의 근본으로서 짝을 이루며, 인간은 제사를 통하여 보본반시(報本反始)함으로써 인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금장태, 『위의 책』, 200~201쪽,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 그런데 이와 같은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는 기원전 6세기~5세기말 바로 공자가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는데, 공자는 그의 제자들(공자교단孔子敎團)과 함께 유교라는 형태로 위의 이론들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교문화권에서의 제사의 주재자(主宰者)는 타 종교나 원시유(原始儒) 시대처럼 전문적인 사제(司祭)(原始儒의 시대는 샤먼)가 아니고 자손인 현재의 당주(當主)(宗孫)가 맡아 일상적으로 행한다. 전문적 사제가 아니니 유교는 교단종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일상성과 비 종단 종교—으로 말미암아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주도 언젠가는 죽어서 조령(祖靈)이 된다고 하면 조상의 제사를 계속해 줄 일족(宗族)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손(男兒)을 낳는 일(자손계사·子孫繼嗣)이야말로 절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육친의 관계에서 보면

祖先---祖父母 — 父母 — 自己 — 子 — 孫---(一族)이 된다. 정리하면,

①조상과의 관계(과거)

②父와의 관계(현재)

③자손과의 관계(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유교에선 이 관계를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

고 하나로 통합한다. 즉

- ①조상에의 제사(招魂儀禮)
- ②부모에의 정애(좁은 의미의 孝)
- ③자손을 잇는 일(子孫繼嗣)

이들 세 가지 행위를 통합해서 '효'라 칭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효라 하면 ②의 부모에의 경애만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효(孝)를 잘못 이해한 것이요, ① '조상에의 제사'는 물론, ③ '자손을 잇는 일'도 유교에선 효(孝)라 생각한다. 필자는 어린 시절 선고(先考)로부터 선비가 배우고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봉제사(奉祭祀), 둘째 접빈객(接賓客), 셋째 수기(修己)라 배웠다. 그 때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일은 왜 수기(修己)가 마지막이요, 봉제사(奉祭祀)가 첫 번째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이론에 따라 생각한다면 효를 행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조상(祖上) 조령(祖靈)을 재생시키게 되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손들의 제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교에선 그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몸은 부모의 유체(遺體)'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여기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곧 자기의 생명이란 실은 아버지의 생명이며, 조부의 생명이요, 더 멀리는 조상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혈맥(血脈), 혹은 피의 사슬로 이어져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자손·일족이 있어 백년 앞, 천년 앞, 일 만년 앞까지 자손이 이어진다면 자기는 개체로서는 죽더라도 육체

의 사후에도 자손들의 생명과의 연속에 의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효를 행함으로써 자기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부로 느끼며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의 공포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유가에서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죽음의 이론은 '영원(永遠)한 생명론(生命論)'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생명론으로서의 효'에 관해서 소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생명론으로서의 효'를 기초로 해서 훗날의 유교는 그 위에 가족윤리(家族理論)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사회윤리(政治倫理), 곧 예교성(禮敎性)을 쌓은 것이다. 12세기의 신유교(朱子學)에 이르면 다시 그 위에 우주론(宇宙論) 형이상학(形而上學)까지 구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유교가 국교화(國敎化)되면서, 특히 그 경전(經典)이 과거(科擧)의 기본과목이 되면서 예교성(禮敎性)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그 종교성은 뒷전으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IV 맺 음 말

이제 마지막으로 유교는 사라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짧은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제2절의 〈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사회에서 유교는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연 그럴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아침부터 해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로(徒勞)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교의 표층(表層), 즉 그 예교성(禮敎性)(윤리도덕 사회규범)은 크게 변한

것이 사실이요 또한 변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교의 근본, 그 종교성은 다소의 변질은 있지만 소멸을 운운할 만큼 크게 훼손(毀損)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거나, 가지(加地)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유교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단견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종교든 예교성은 그 사회적(社會的) 성격(性格)으로 말미암아 지성(知性)에 의해서 이해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데 반하여, 그 종교성은 그 사적(私的) 성격(性格)으로 말미암아 감성(感性)에 의해서 신앙(信仰)되기 때문에 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리하여 유교적 도덕윤리(예교성·禮敎性)가 형핵화(形核化)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종교성(유교의 기층基層, 원감각原感覺)은 변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교의 내면화시대(內面化時代)(유교발전의 제4단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내면화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와 같이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사람들 마음 속 깊은 심층에 종교성=‘생명론으로서의 효’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유교의 근본인 조상숭배=제사는 영원히 화석처럼 불변할 것인가? 어느 재일(在日) 한국인 연구자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는 모든 게 풍화(風化)되어버렸으나 제사는 화석화(化石化)되어 있다”고 말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본국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유교신자가 위의 조사 결과처럼 1%에도 미급한다고 보는 것은 설문의 내용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중국에서도 1965년 문화혁명으로 공구(孔丘)라 부르며 노예제도의 옹호자라 해서 갖은 수난을 받던 공자(孔子)는 1976년의 천안문(天安門)사태를 계기로 공포의 시대가 끝나고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화혁명(文化革命)’은 오류였음을 정식 승인함으로써 다시 명예를 회복했고 유교는 재평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하여 1988년 노벨상수상자들이 파리에 모여 “만일 인류가 21세기를 살아 남고자한다면 2500년 전의 공자(孔子)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If human beings want to survive in the 21th century, they must learn from Confucius who live 2500 years ago.)

왜 세계의 지성들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것일까? 그것은 근대화=개별화가 가져다 준 폐해를 인식한 인류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고민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거니와, 그 대안의 하나로서 등장한 것이 공동체(共同體)에 관한 재인식이 아닌가 한다. 공동체는 크게 핏줄을 연결(유대·紐帶)로 하는 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와 지연(地緣)을 연결로 하는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근대국가(중앙집권적이든, 분권적이든)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연공동체는 소멸되었거나 쇠미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혈연공동체는 다르다. 특히 혈맥의 사슬로 뽕뽕 묶여진가족은

제도를 바꾸어도 쉽게 해체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 심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혈연공동체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생명론(生命論)으로서의 효(孝)', 즉 유교의 종교성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성립된 것이므로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공동체를 없애자는 정치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이 오늘을 개탄하고 내

일에 경중을 울리고자 할 때는 거의 모두 고전(古典)(유교 경전經典)의 경구나 고사(故事)를 인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의 원감각(原感覺) 속에 유교적 의식이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유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화시대(內面化時代)로 접어든 것 뿐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파리에 모인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의 지성들의 혜안(慧眼)은 이 점을 직시한 게 아닐까?

〈參考文獻〉

- 1 성백호 역주,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1
- 2 范善均 譯解, 『孟子』, 蕙園出版社, 1999
- 3 陳鼓應 著, 최재묵·박종연 옮김,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4
- 4 김정수, 『전라도 사람들 6(조선시대 김인후)』, 도서출판 장문산, 2009
- 5 尹絲淳, 「유학 윤리사상의 현대적 변화에 대한 한 구상」, 『국학연구』, 18집, 2011
- 6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7 尹學準, 『兩班 동네 소동기』, 圖書出版 효리, 1996
- 8 朴光淳, 『韓國は儒敎社會なのか』(大矢野榮次 編著, 『世界の變化と日本の經濟・社會』, 五絃舎, 2003
- 9 白川 靜, 『孔子전』, 中公文庫, 2003(改版 12刷)
- 10 加地伸行, 『儒敎とは何か』, 中公新書, 1994(제10판)
- 11 —, 『沈黙の宗教—儒敎』, 筑摩書房
- 12 —, 『家族の思想—儒敎的死生觀の果實』, PHP新書
- 13 — 編, 『儒敎の本』, 學習研究社
- 14 池田秀三, 『自然宗教の力』, 岩波書店
- 15 諸橋徹次, 『中國古典名言事典』, 講談社學術文庫, 2000(제25쇄)
- 16 保坂幸博, 『日本の自然崇拜, 西洋のアニミズム』, 新評論, 2003
- 17 和辻哲郎, 『風土』, 岩波文庫, 2001
- 18 串田久治, 『儒敎の知恵—矛盾の中に生きる』, 中公新書, 2003
- 19 姜在彦, 『朝鮮儒敎の二千年』, 朝日新聞社, 2001
- 20 宮嶋博史, 『兩班』, 中央公論社, 1995
- 21 朴光淳 외, 「中國社會科學院訪加記」, 『大韓民國學術院通信』 제245호 (2013)
- 2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5~2014』, 2015
- 23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木全德雄 譯, 『儒敎と道敎』, 創文社, 1971)
- 24 J. Hick, God Has Many Names—Britain's New Pluralism, 1980 (間瀬啓允 譯, 『神は多くの名前を持つ』, 岩波書店, 1986)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실사...내년 7월 15일 최종 결정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2015년 9월 14일 마쳤다.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필암서원(국가사적제242호)을 비롯한 전국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전문가 현지실사가 9월14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현지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수행한다.

이번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캐나다 회원 겸 홍콩대 건축학부 교수인 린디스테파노 씨가 담당했다.

필암서원은 1590년 평지에 세워진 한국서원 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서원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를 제향 하는 사액서원 이면서 중앙과 연결된 정치활동 거점으로서 특징을 지닌 곳이다. 문서와 전적, 목판(보물제 587호필암서원문서, 전남 유형문화재 하서선생문집 목판 등) 조선시대 서원운영과 선비교육에 관한 중요한 기록 자료도 전해오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쇄원 48명 500년만에 재현

담양 소쇄원에서 10월17일과 24일, 전남대 지역연구센터 주최로 서예가 등 참가자들이 “하서 김인후선생 소쇄원 48명”을 500년만에 재현하였다. 서예가 청담 민영순선생이 한시를 써서 애양단에 붙이면 한학자 김영순, 김재룡선생이 옛날 선비들이 읊었던 방식 그대로 낭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재현광경을 주시하며 하서선생의 시문학을 감상하였다.

‘성리학 대가’ 하서 김인후선생 춘향제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선생(1510~1560)을 기리는 ‘춘향제(春享祭)’가 지난 4월 1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정환담 필암서원 산양회(山仰會) 회장, 이용규 뿌리회 명예회장, 김정석 전주 유림 대표, 최기욱 왕인박사연구회장, 정규원 경남 포항서예연구회장, 김인수 울산김씨 문정공 도유사 등 유림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奉進禮),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初獻禮·첫 잔을 올리는 예), 아헌례(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종헌례(마지막 잔을 올리는 예)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헌관은 2013년 10월 필암서원과 교류협약을 맺은 중국 웨루(岳麓)서원 쑤젠핑(孫建平) 부원장이 맡았다.

초헌관을 맡은 이용규 뿌리회 명예회장은 제를 마친 뒤 서원 내 청절당에서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강론했다.

이 명예회장은 "조선 후기 양명학적 학풍을 이은 강화학파는 시문(詩文)을 통해 올바른 인간상을 제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실천적인 학풍을 이어받은 구한말 학자들은 일제의 강제 합병에 항거하고 민족자주 이념을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하서선생은 154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부수찬이 돼 세자(인종)를 가르쳤다.

인종이 죽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써 호남의 유종(儒宗)으로 추앙받고 있다.

엄숙봉행 하서 김인후선생 추향제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 선생(1510~1560)을 기리는 '추향제(秋享祭)'가 10월 2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정환담 필암서원 산양회(山仰會) 회장, 박광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우택 전 충북대 학장, 선병국 전 보성향교 전교, 김성균 부산 일신서도원 원장,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등 유림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초헌관을 맡은 박광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제를 마친 뒤 서원 내 청절당에서 '유교의 종

교성에 관한 일고찰'을 주제로 강론했다.

박 회원은 "유교의 종교성은 조상 숭배와 제사 의식을 통해 잘 나타난다"면서 "유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孝)는 부모에 대한 경애뿐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손을 잇는 일까지 포함한다"며 "생명론으로서의 효, 즉 유교의 종교성은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종이 죽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文廟)에 배향돼 호남의 유종(儒宗)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날 추향제에서 김정서 양(12·장성중앙초)은 '하서 추모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 금상을 받았다.

4월 23일에 본회 이사회 열어 하계학술강연 논의하다

본회 이사회가 지난 4월 23일(목)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열려 하계학술강연, 본회 집행부 및 임원 구성, 산양회보 25회 편집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달석 신임 감사장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들었다.

이날 안건으로는 본회 총무, 부총무·재무 선임문제, 부회장단 및 고문, 전문위원 선임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본회 회원명부 정리 및 발송록 점검에 대해

이충원 총무간사의 보고를 들었다.

2015년도 하계학술강연은 7월 3일(금)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강연주제와 강사초청에 대해서도 김재수 이사에게 일임하였다.

산양회보 25호 편집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회를 마쳤다.

2015년도 정기총회 준비이사회 열려 김상헌, 김세곤, 김봉곤 신임이사도 참여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강연, 산양회보 발간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6일(금)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이사 11명, 감사 2명, 총무와 재무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 준비와 본회운영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김재수 이사의 사회로 여러 안건을 심의하였다.

먼저 신임이사로 선임된 김상헌 문정공부도 유사,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김봉곤 순천대학교수를 정환담 이사장이 소개하고 인사말을 들었다. 이어서 박래호 총무 후임인 이충원 이사, 양희택 재무후임인 김병국 전 이사를 소개하고 이충원 총무의 인사를 받았다.

이어서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감사를 받아 총무가 제출하고, 2016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12월 16일(수), 17일(목) 가운데 하나를 광주향교 및 강사와 협의하여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학술강연 강사초청은 오종일 전주대 명예교수로 정하였다. 이어서 산양회보 발간을 논의하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발간하지 못한 원고가 있으므로 25호, 26호 합병호로 발간하기로 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하서학술발표회를 내년에 필암서원에서 열기로 호남재단 김원중 연구실장과 합의했음을 김재수 이사가 보고하였다.

금년은 메르스 때문에 산양회 활동이 거의 없었음을 반성하고 김세곤, 김봉곤 젊은 학자를 새 이사로 초빙했으므로 2016년부터 산양회 활동이 단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어서 김세곤 이사가 河西先生에 대한 만화책을 발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서선생을 널리 알리는 것은 만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퇴계 이황,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에 대한 만화책이 발간되어 독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했다.

필암서원 견학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서선생이 태어난 맥동생가, 하서묘소, 손부인 일비장 기씨묘소, 난산 통곡대 등 하서선생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서관련 유적지 탐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양회를 학술연구단체로 전환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과 산양회가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을 광주에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회원확보에 대해 여러 번 논의했으나 한번도 실천된 적이 없다. 회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거나 활동을 못하시므로 날로 회원이 줄고 있다.

이사장께서 총무에게 지시하여 실제적으로 회원확보를 추진해 달라고 김용숙 이사가 요청하였다.

본회 신임 이사(理事) 4명 선임

2015년 10월 16일자로 5명의 이사와 감사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이사 선임을 논의하였다.

양희택, 김병국 이사가 퇴임하고 김재수, 박래호, 이충원 이사와 김승규 감사가 연임되었다.

김대욱(姜大旭) 광주향교전교, 김상현(金相憲) 문정공부도유사, 김세곤(金世坤) 호남역사연구원장, 김봉곤 순천대 교수가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정환담 이사장, 정채호, 김인수, 김용숙, 김장수 이사와 더불어 12명의 본회 이사진구성이 완료되었다. 특히 김세곤 원장, 김봉곤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앞으로 본회 활동이 기대된다.

**박래호 총무 사임,
신임 총무에 이충원 이사
양희택 재무 사임,
신임 재무에 김병국 전이사**

본회 초창기부터 총무로 수고해온 박래호 총무가 사임한 후 신임 총무 선임에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이충원 이사를 신임 총무로 선임하였다.

또한 본회 초창기부터 재무를 맡아 성실하게 헌신해온 양희택 전이사가 사임, 김병국 전이사

를 재무로 선임하였다. 정환담 이사장은 박래호 총무와 양희택 재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박수로 격려하였다.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 강의를 모아서 본 산양회에 500만원을 후원해 주시다

박병호 원장님은 필암서원과 본 산양회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지난 10월 2일 필암서원 추향제 인사말에서 박병호 원장님은 “몸이 불편하여 불참하려고 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역시 오기를 참 잘했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산양회가 젊은 학자를 새 이사로 초빙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좋아하면서 강의를 하시고 받으신 강의를 모은 것이라면서 본 산양회에 500만원을 후원해 주셨다.

원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2016년에는 산양회가 제 몫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박병호 원장님은 2012년에도 필암서원에 1000만원, 본 산양회에 500만원을 후원해 주시어 값지게 쓰인바 있다.

성균관대 학생들 순창 훈몽재서 유교교육 하서 학술재단 지원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중건한 순창 훈몽재가 유학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훈몽재는 하서 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6~17일 이틀간 성균관대 유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 전공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3학점이 인정되는 학부 강좌로서 선비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유학의 학통, 한국의 선비문화, 유학과 도학 등 유학과 도학에 대해 이기동 · 김도일 · 백승중 교수와 김충호 산장 등 유학과 동양철학의 대가들의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훈몽재 김충호 산장은 “이달 중에 2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이 조선 유학의 진수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의 큰별’ 김인후선생 걷던 길 복원한다

순창군 ‘선비의 길’ 조성

둔전리~하리 5km구간

조선 유학의 큰별인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이 걷던 길이 복원된다. 길 이름은 ‘선비의 길’로 정했다.

순창군은 16일 “쌍치면 둔전리부터 복흥면 하리까지 5km 구간을 ‘선비의 길’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둔전리~하리 구간은 조선 유학의 큰별인 김인후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훈몽재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사이 구간이다.

훈몽재는 현재 전통예절과 유학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순창군은 이달부터 2017년까지 국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유학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걷는 사색의 길 등을 갖춘 ‘선비의 길’을 만들기로 했다. 군은 또 이번 선비길과 연계해 내장산, 훈몽재, 가인연수관, 추령장승촌, 산림박물관을 연계하는 서부 관광코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선비의 길 조성사업은 그동안 유학강의에 집중했던 훈몽재를 활용해 걷는 길을 개발함으로써 선인의 숨결을 기리며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주변에 송강 선생의 친필이 보존돼 있고 영광정, 낙덕정 등 조선 유학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많아 ‘선비의 길’이 완공되면 조선유학과 관광이 결합한 독특한 문화유산 탐방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仁宗과 河西, 500년 의문에 답하다’

연극공연

필암마을 축제로 10월 9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0월 9, 10일 필암마을협동조합은 제1회 필암서원 남도전통문화축제를 열었다. 특히 10월 9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축제의 주제가이기도 한 역사극 ‘仁宗과 河西, 500년 의문에 답하다’가 공연되었다.

마을축제의 정체성과 성공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공연이었다.

이 역사극은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장 정철 교수 연출로 동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생

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한양대 윤영민 교수가 직접 극의 나레이션을 맡아 더욱 돋보였다.

극본은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박상은 작가가 극본을 썼다. 박상은 작가와 윤영민 교수는 5번이나 만나 극본을 다듬었다고 한다. 하서선생의 삶의 흔적이 서려있는 현장을 함께 답사하였다고 한다.

인종의 스승이었던 하서가 인종의 승하를 애통해하며 해마다 인종의 기일인 7월 초하루에 난산에 들어가 북쪽을 향해 통곡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인종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단초로 만든 창작극이었다.

배우들의 열연에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극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랩으로 반전을 꾀해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서에 대한 공연으로는 근래 압권이었다.

‘묵묵히 걸어온 길’

삼양홀딩스 김상하회장 회고록 발간

본회 고문이사기도 한 김상하(金相夏) 삼양홀딩스 회장은 금년 6월에 회고록 ‘묵묵히 걸어온 길’을 발간하였다.

15년 전에는 회고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언제부터인지 심경에 변화가 생겨 내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까닭으로 첫째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조부 지산(芝山) 김정중(金景中)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훨씬 그 이전인 하서 김인후선생으로부터 시

작된 울산 김씨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평생을 함께 한 삼양(三養)의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90년 동안 곳곳하게 버텨온 삼양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정신이 올바르게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술회했다. “후손들에게 내가 살아온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 씀처럼 이 회고록은 김상하회장이 진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구십평생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깊게 올려준다.

창립 9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이 걸어온 길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서술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큰 뜻을 가진 분들이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울산 김씨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되리라 생각된다.

회원 동정

박래호이사는 10월 18일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예문관하여 송정전 뜰에서 진행된 제22회 과거제도(科擧制度) 재현을 위한 전국 한시 백일장에 시관으로 참석했다.

24일 담양군 창평향교가 주최한 제2회 전국 한시 백일장 시관으로 참석했다.

2015年 4月 1日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금 액	성 명	직 책 · 주 소
5,000,000	김 상 하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500,000	정 환 담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500,000	김 인 수	문정공 도유사
300,000	소 쇠 원	제주양씨 소쇄원 중증
200,000	김 달 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100,000	김 상 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 정 석	전주 완산구 어진길67(종현관)
100,000	김 문 수	엠에스토피아 대표
100,000	김 관 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 종 환	문정 친목회장
100,000	김 창 수	계파 도유사
100,000	김 재 승	문정공 운영위원
100,000	임 명 택	농협 장성군 지부장
100,000	김 재 완	장성군 의회 의장
100,000	허 태 열	영귀서원
100,000	정 환 담	산양회 이사장
100,000	고 달 석	장덕금속 대표이사
100,000	양 현 옥	장성군 교육지원청 청장
100,000	김 문 진	광주시 북구 신안동 482-19
50,000	유 관 중	송계서원 도유사
50,000	김 영 길	서울 성동구 성수2동
50,000	양 중 호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길 84
50,000	김 상 술	화암처사공파 회장
50,000	고 광 춘	장성군 청년유도회장
50,000	김 성 수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50,000	변 원	봉암서원
50,000	양 태 호	광주광산신가동1199 대성베르발102-602
50,000	반 옥 진	장성고등학교 교장
50,000	정 종 연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회장
50,000	김 영 일	장성군산림조합장
50,000	공 영 갑	장성 문화원장
30,000	양 해 동	광주 남구 백운동 623-30

2015年 10月 2日

筆巖書院 秋享祭 獻誠金

금 액	성 명	직 책 · 주 소
3,000,000	학술회장	(사)필암서원 학술회
1,000,000	김진석(가)	경북 영천시 망정동(맥동파)
5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500,000	산양회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20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100,000	김상원	문정공 총무유사
100,000	김진산	필암서원 별유사
100,000	심기찬	장성군 남면 양계사
100,000	김문수	엠에스토피아 대표
100,000	양재혁	고암 양자징 종손(소쇄원)
100,000	김중하	남구 봉선동
100,000	김관중	울산김씨 장파 도유사
100,000	김창수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100,000	김종환	문정친목회 회장
10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동식	울산김씨 서수헌공 종중 회장
100,000	임명백	농협 장성군 지부장
100,000	김상욱	장성군 진원면 평촌(본손)
100,000	이영만	장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100,000	김양수	장성군 전 군수
100,000	김재완	장성군 군의회 의장
100,000	유동완	광주 · 전남 선위회 회장
100,000	정우택	영일정씨 문정공 후손
50,000	반강진	장성군 노인회 회장
50,000	양중호	담양군 수북면
50,000	정종연	장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50,000	차장근	장성군 축협 조합장
50,000	김승규	광주시 남구 백운동
50,000	김상백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50,000	김상준	울산김씨 대종회 부회장

2015년 山仰會 헌성금

삼양홀딩스 광고	200만원
하서학술재단	300만원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500만원
김승규 본회 감사	10만원
고달석 본회 감사	10만원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30만원
김상헌 본회 이사	30만원

중용(中庸) 제22장 [천하지성장 天下至誠章]

唯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誠이라야 자기의 타고난 성性を 온전히 발현할 수 있다. 자기의 타고난 성性を 온전히 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타인의 성性を 온전히 발현케 할 수가 있다. 타인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어야 모든 사물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어야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어야 비로소 천天和 지地와 더불어 온전한 일체가 되는 것이다.

2015년 춘향 추모 화환

광주향교 전교	강대욱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기세락
성균관유도회 광주본부 회장	김남전
광주향교 모성회 회장	김형관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인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울산김씨 광주지역종친회장	김용숙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종근
그레이스 회원 원장	김동원

2015년 추향 추모 화환

광주향교 전교	강대욱
광주향교재단이사장	최흥렬
성균관 유도회광주본부 회장	김남전
광주향교 모성회회장	김형관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울산김씨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종근
그레이스회원	김동원

- 25·26호 목차 -

하서 시(河西 詩) 두 편 하서 김인후	1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의 인연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2
하서선생 시의 천명(天命)사상과 그 지향성 오종일 (전주대 명예교수)	5
청절당(淸節堂) 제영(題詠) 소감 김장수 (본회의사)	15
정암선생과 하서선생의 도통을 통한 조우 김용숙 (본회의사)	22
강화학파 정신과 독립운동 이용규 (전 뿌리회회장)	25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박광순 (대한민국 학술원회원)	37
필암서원 · 산양회 소식	49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본관 ③아호(한문) ④생년월일 ⑤주소 ⑥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 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인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 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 (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송' 김문준 교수 강연(전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교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파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